

우리말 사람 뼈이름 용어의 변천사

송창호 ¹

¹전북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

The History of Korean Anatomical Terms on Bone Names

Chang Ho Song¹

¹Department of Anatomy, Jeonbuk National University Medical School

Abstract : The first book in Northeast Asia to translate a western anatomical book into Japanese (actually Chinese) and published in 1774 is the Kaitai Shinsho. Most of the anatomical terms that were first used in the Kaitai Shinsho have disappeared today, and we do not know how the missing terms have chang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tribute to the revision of anatomical terms and study of anatomical terms, and to help anatomical professors, students, and ordinary people. Focusing on the bone name terms used in the Kaitai Shinsho (1774), the transition process of bone name terms has been investigated for about 250 years to this day. Accordingly, four anatomical textbooks published from 1774 to 2020; the Kaitai Shinsho (1774) and the Revised Kaitai Shinsho (1826), the Anatomy of Jejungwon (1906), the Anatomia Minor (1962), two terminology, the sixth edition of Korean Anatomical Terminology (2014), and the sixth edition of Medical Terminology (2020) were searched and compared with each other. In addition, the number and ratio of bone name terms used identically were calculated by searching for bone name terms in anatomical textbooks and terminology books. The total number of bone name terms in the Kaitai Shinsho was 63, with 26 head bones, 12 trunk bones, 9 arm bones, and 16 leg bones. Among the bone name terms used in four anatomy textbooks and one glossary, the proportion of terms used the same today (sixth edition of the Medical Terminology, 2020, published by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is as follows. 33.3% of the bone name terms in the Kaitai Shinsho (1774), 47.4% of the bone name terms in the Revised Kaitai Shinsho (1826), 60.5% of the bone name terms in the Anatomy of Jejungwon (1906), 74.3% of the bone name terms in the Anatomia Minor (1962) and 97.4% of the bone name terms in the sixth edition of Korean Anatomical Terminology (2014) were being used identically until today (2020). In addition, 28.8% of the bone name terms in the Kaitai Shinsho (1774) were used identically in the Revised Kaitai Shinsho published in 1826, 52 years later. Among the bone name terms in the Revised Kaitai Shinsho (1826), 61.5% were used identically in the Anatomy of Jejungwon published in 1906, 80 years later. Among the bone name terms in the Anatomy of Jejungwon (1906), 63.0% were used identically in

저자(들)는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합니다.
저자(들)는 이 연구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없음을 밝힙니다.

Received: June 5, 2026; **Revised:** June 12, 2026; **Accepted:** June 19, 2026

Correspondence to: 송창호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 **E-mail:** asch@jbnu.ac.kr

the Anatomia Minor published in 1962, 56 years later. Among the bone name terms in the Anatomia Minor (1962), 6.0% were used identically in the sixth edition of Korean Anatomical Terminology published in 2014, 52 years later. Summarizing the above results, it can be seen that the terms of human bone name are constantly changing from 1774 to today (2020). In particular, between the Kaitai Shinsho (1774) and the Revised Kaitai Shinsho (1826), and between the Anatomia Minor (1962) and the sixth edition of Korean Anatomical Terminology (2014), respectively, are 52 years apart, but the percentage of terms used the same is 28.8% and 6.0%, and most of the bone name terms have changed rapidly. This suggests that bone name terms have changed rapidly over a certain period of time. It might be seen that human bone name terms also adapt and develop with the trend of the times, similar to living organisms.

Keywords : Bone names, Korean anatomical terminology, Terminologia anatomica japonica, History of anatomical terminology

서 론

뼈의 관절에서 통증이 유발되는 관절질환들이 많이 생긴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체중을 지탱하거나 운동에 관여하는 척추관절과 엉덩관절(고관절), 무릎관절(슬관절), 발목관절(족관절) 등에서 골절이나 염증이 생겨 통증으로 고생한다. 이러한 사람 몸의 관절들을 일반인들이 말할 때 순수한 우리말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아직도 일부에서 한자 용어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고관절(股關節)’이다[1]. 고관절은 절구넙다리관절(acetabulofemoral joint)이라고 하는 ‘엉덩관절(hip joint)’이다[2]. 즉 볼기뼈 절구오목(acetabular fossa)과 넙다리뼈머리(head of femur) 사이의 관절이다. 고관절의 ‘股’(고)는 ‘넓적다리(대퇴, 허벅지)’를 의미하는 한자이다[3]. 일반인들은 한자를 사용하지 않고 한글로 ‘고관절’이라고 말하면 ‘엉덩관절’이라고 알고는 있지만, 왜 ‘고관절’이라고 부르는지 그 유래는 대부분 잘 모른다.

우리나라에서 해부학 교육은 19세기 끝 무렵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 시작되었고, 처음에는 영어를 배우게 한 후 영어로 교육하였다. 그래서 교육 기간이 길어지고 많은 사람을 교육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말 교과서를 만들게 되었다. 또 20세기 초에는 일부 대학에서 일본인 해부학자가 해부학교육을 담당하였다. 첫 우리말 해부학 교과서는 1906년 일본책을 번역한 것이며, 여기서 사용된 대부분 해부학용어는 일본어 해부학 교과서에 있는 것을 그대로 사용하였다[4]. 19세기 유럽에서 사용되는 해부학용어는 저자, 나라, 의학의 각 분야마다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한 구조에 평균 약 10개의 용어가 있었다. 그리고 같은 해부학 구조에 나라마다 다른 해부학자의 이름을 붙여 사용하는 예도 많아 전문가도 혼동을 일으킬 정도였다. 이런 용어의 혼란은 교수와 학생에게 똑같이 고통을 주었고, 해부학 연구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

었다. 그래서 통일된 국제해부학용어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이 용어를 다듬는 일이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4].

동북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서양 해부학 서적을 일본어(실제로 한문)로 번역하여 1774년에 발간된 책이 해체신서(解體新書)이다[5]. 해체신서(1774년)가 출판될 때 만들어져 사용된 해부학용어들 중에서 오늘날까지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은 ‘頭蓋骨(두개골)’, ‘淚骨(누골)’, ‘上顎骨(상악골)’, ‘下顎骨(하악골)’, ‘舌骨(설골)’, ‘軟骨(연골)’, ‘神經(신경)’, ‘動脈(동맥)’ 등이 있다. 1774년 당시에 많은 해부학용어가 일본어(실제로 한문)로 번역되었다. 그러나 해체신서에서 처음 사용되었던 해부학용어들은 오늘날 대부분 사라졌고, 사라진 용어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변천 과정을 우리는 잘 모른다. 이에 앞으로 해부학용어의 개정과 연구, 해부학을 가르치는 교수와 배우는 학생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도움을 주고자 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해체신서에서 사용된 해부학용어들 중에서 뼈이름 용어를 선별하고, 약 250년이 지난 후 2020년에 대한의사협회에서 펴낸 의학용어집 제6판[6]에 나오는 사람 뼈이름 용어들과 비교하여 그 변천 과정을 알아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4개의 해부학 서적인 해체신서(解體新書 1774년, 일본어판) [7,8]와 중정해체신서(重訂解體新書 1826년, 일본어판) [8,9], 제증원 히부학(1906년, 한국어판) [10,11], 소해부학(小解剖學 1962년, 한국어판) [12] 그리고 2개의 용어집인 해부학용어 여섯째판(2014년, 대한해부학회 발행) [2]과 의학용어집 제6판(2020년, 대한의사협회 발행) [6]을 사용하였다. 해체신서(解體新書, 1774년)는 동북아시아에서 최초로 서양의 해부학 교과서를 일본어로 번역한 해부학 책이다[5]. 중정해체신서(重訂解體新書, 1826년)는 해체신서의 개정판으로 일본에서 출판된 일본어 해부학 책이다[9]. 제증원 히부학(1906년) [10]과 소해부학(小解剖學,

1962년) [12]은 각각 조선시대와 대한민국에서 출판된 우리말 해부학 교과서이다. 또한 해부학용어 여섯째판(2014년) [2]은 대한해부학회에서 출판한 해부학용어집이고, 의학용어집 제6판(2020년) [6]은 최근에 대한의사협회에서 출판한 의학용어집이다. 4개의 해부학 서적과 해부학용어 여섯째판(2014년)은 1774년부터 2020년 사이에 출판되었고, 출판 연도의 간격이 대략 50~60년 정도로 비슷하였다(Fig. 1). 이 연구에서는 4개의 해부학 서적과 2개의 용어집에 나오는 뼈이름 용어들을 검색하였고, 서로 동일하게 사용된 뼈이름 용어들의 수와 그 비율을 산출하여 용어들의 변천 과정을 알아보았다.

연구 방법

이 연구에서 사용된 4개의 해부학 서적은 해체신서(解體新書 1774년, 일본어판) [7,8]와 중정해체신서(重訂解體新書 1826년, 일본어판) [8], 제증원 히부학(1906년, 한국어판) [11], 소해부학(小解剖學 1962년, 한국어판) [12]이었다. 또한 이 연구에서 사용된 2개의 용어집은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것으로 해부학용어 여섯째판(2014년, 대한해부학회 발행) [2]과 의학용어집 제6판(2020년, 대한의사협회 발행) [6]이었다. 해체신서(1774년)와 중정해체신서(1826년)에 나오는 뼈이름 용어는 김성수가 우리말로 번역하여 2014년에 출판한 한국판 해체신서[8]를 이용하여 검색하였다. 제증원 히부학(1906년)에 나오는 뼈이름 용어는 국립한글박물관에서 2016년에 출판한 ‘해부학 1’의 자료편과 주석편을 이용하여 검색하였다[11].

해체신서(1774년)가 출판된 후 52년이 지난 다음 중정해체신서(1826년)가 출판되었다[8]. 중정해체신서가 출판된 후 80년이 지난 다음 제증원 히부학(1906년)이 출판되었다[11].

제증원 히부학이 출판된 후 56년이 지난 다음 소해부학(1962년)이 출판되었다[12]. 소해부학이 출판된 후 52년이 지난 다음 해부학용어 여섯째판(2014년)이 출판되었다[2]. 해부학용어 여섯째판이 출판된 후 6년이 지난 다음 의학용어집 제6판(2020년)이 출판되었다[6] (Fig. 1). 의학용어집 제6판(2020년) [6]에 나오는 해부학용어들은 한문 용어(실제로 한문을 한글로만 표기)와 한글 용어를 함께 표기하였기에 옛날부터 사용된 한문 용어와 비교할 수 있었다. 이에 출판 연도의 간격이 대략 50~60년 정도로 비슷한 해부학 서적과 용어집을 사용하여 Fig. 1과 같이 9개의 구간으로 나누었고, 동일하게 사용된 뼈이름 용어들의 수와 그 비율을 산출하여 약 250년 동안 우리말 사람 뼈이름 용어의 변천 과정을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1. 해체신서에 나오는 뼈이름 용어

해체신서(解體新書, 1774년) [7,8]에서 처음 일본어(실제로 한문)로 번역되어 사용된 해부학용어들을 검색하여 사람 뼈이름 용어를 선별하였다. 해체신서에 나오는 사람 뼈이름 용어들은 모두 63개로, 대부분 ‘제5장 뼈와 관절(骨節篇)’에 들어 있었고, 뼈의 종류는 머리뼈 26개, 몸통뼈 12개, 팔뼈 9개, 다리뼈 16개였다(Fig. 2). 해체신서에 나오는 뼈이름 용어들은 모두 한문으로 표기되었다. 아래 사례의 괄호 속의 한글은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우리말로 번역하여 표기한 것이다.

사례: 頭骨(두골), 頭蓋骨(두개골), 前頂骨(전정골), 額骨(액골), 後頂骨(후정골), 桴骨(질골), 大陽骨(대양골), 瀉酒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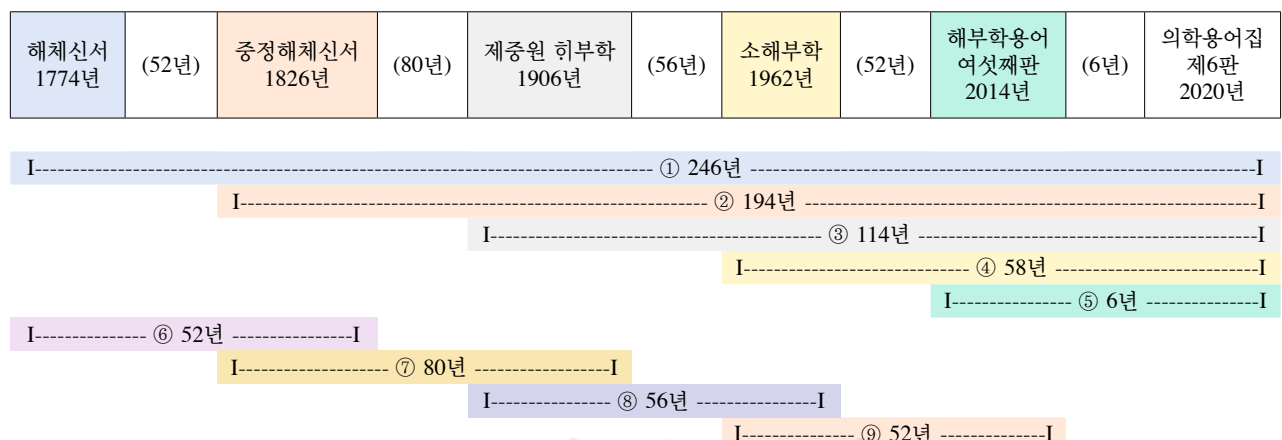


Fig. 1. The comparison of publication year of 4 anatomical textbooks and 2 glossaries used in this study.

번호	해체신서 (1774년)	의학용어 제6판(2020년)		
		구용어	한글 용어 신용어	영어 용어
1	頭骨/두골	두개	머리뼈	Cranium/Skull
2	頭蓋骨/두개골	뇌두개골	뇌머리뼈	Cerebral cranium
3	前頂骨/전정골	두정골	마루뼈	Parietal bone
4	額骨/액골	전두골	이마뼈	Frontal bone
5	後頂骨/후정골	후두골	뒤통수뼈	Occipital bone
6	櫛骨/질골	접형골	나비뼈	Sphenoid bone
7	大陽骨/대양골	측두골	관자뼈	Temporal bone
8	滙酒骨/늑주골	사골	별집뼈	Ethmoid bone
9	下海綿骨/하해면골	하비갑개	아래코선반	Inferior nasal concha
10	淚骨/누골	누골	눈물뼈	Lacrimal bone
11	頰骨/알골	비골	코뼈	Nasal bone
12	薄片骨/박편골	서골	보습뼈	Vomer
13	上顎骨/상악골	상악골	위턱뼈	Maxilla
14	上顎/상악	구개골	입천장뼈	Palatine bone
15	觀骨(頰骨)/관골(협골)		광대뼈	Zygomatic bone
16	下顎骨/하악골	하악골	아래턱뼈	Mandible
17	舌骨/설골	설골	목뿔뼈	Hyoid bone
18	聽骨/청골	이소골	귓속뼈	Auditory ossicle
19	鑼骨/등골	등골	등자뼈	Stapes
20	砧骨(鑢骨)/침골(질골)	침골	모루뼈	Incus
21	槌骨/추골	추골	망치뼈	Malleus
22	齒牙(齒牙)/치아	치	이	Teeth
23	板齒/판치		앞니	Incisor tooth
24	犬牙(眼牙)/견아(안아)	견치	송곳니	Canine tooth
25	齧齒/구치	대구치	큰어금니	Molar tooth
26	眞牙/진아		사랑니	Third molar tooth
27	椎骨(脊椎骨)/추골(척추골)	척주	등골뼈	Vertebral column
28	椎/추	척추	척추	Vertebra
29	項椎/항추	경추	목뼈	Cervical vertebra
30	捧宇內/봉우내	환추	첫째목뼈/고리뼈	Atlas (C I)
31	回轉/회전	축추	둘째목뼈/중쇠뼈	Axis (C II)
32	背椎/배추	흉추	등뼈	Thoracic vertebra
33	腰椎/요추	요추	허리뼈	Lumbar vertebra
34	膠骨(五假椎)/교골(오가추)	천골	엉치뼈	Sacrum
35	骶骨/저골	미추	꼬리뼈	Coccyx
36	蔽骨(胸骨)/폐골(흉골)	흉골	복장뼈	Sternum
37	肋骨/늑골 *위쪽 7개	늑골	갈비뼈	Rib
38	假肋/가늑 *아래쪽 5개	가늑	거짓갈비뼈	False rib
39	缺盆骨/결분골	쇄골	빗장뼈	Clavicle
40	胛骨/갑골	견갑골	어깨뼈	Scapula
41	膊骨/박골	상완골	위팔뼈	Humerus
42	撓臂骨/요비골	척골	자뼈	Ulna
43	直臂骨/직비골	요골	노뼈	Radius
44	腕前骨/완전골	수근골	손목뼈	Carpal bone
45	掌骨/장골	중수골	손허리뼈	Metacarpal bone

Fig. 2. The anatomical terms of bone name in Kaitai Shinsho (1774).

번호	해체신서 (1774년)	의학용어 제6판(2020년)		
		구용어	한글 용어 신용어	영어 용어
46	五指骨/오지골	지골	손가락뼈	Phalanx
47	核骨(胎骨)/해골(태골)	종자골	종자뼈	Sesamoid bone
48	臑骨/곤골(관골)	무명뼈	볼기뼈	Hip bone/Innominate bone
49	腸骨/장골	장골	엉덩뼈	Ilium
50	胯骨/과골	좌골	궁둥뼈	Ischium
51	橫骨/횡골	치골	두덩뼈	Pubis
52	髀骨(股骨)/비골(고골)	대퇴골	넓적다리뼈/넙다리뼈	Femur
53	膝蓋/슬개	슬개골	무릎뼈	Patella
54	內脛骨/내행골	경골	정강뼈	Tibia
55	外脛骨/외행골	비골	종아리뼈	Fibula
56	跗/부	족근골	발목뼈	Tarsal bone
57	可都骨/호토골	거골	목발뼈	Talus
58	踵骨/종골	종골	발꿈치뼈	Calcaneus
59	舟樣骨/주양골	주상골	발배뼈	Navicular
60	撓骨/요골	none	입방뼈	Cuboid/Cuboid bone
61	楔骨/침골	설상골	췌기뼈	Cuneiform/Cuneiform bone
62	足背/족배	중족골	발허리뼈	Metatarsal bone
63	足指骨/족지골	지골	발가락뼈	Phalanx

Fig. 2. Continued.

(녹주골), 下海綿骨(하해면골), 淚骨(누골), 頰骨(알골), 薄片骨(박편골), 上顎骨(상악골), 上顎(상악), 觀骨/頰骨(관골/협골), 下顎骨(하악골), 舌骨(설골), 聽骨(청골), 鑰骨(등골), 砧骨/鑰骨(침골/질골), 槌骨(추골), 齒牙/齒牙(치아), 板齒(판치), 犬牙/眼牙(견아/안아), 齧齒(구치), 眞牙(진아), 椎骨/脊椎骨(추골/척추골), 椎(추), 項椎(항추), 捧宇內(봉우내), 回轉(회전), 背椎(배추), 腰椎(요추), 膠骨/五假椎(교골/오가추), 髀骨(저골), 蔽骨/胸骨(폐골/흉골), 肋骨(늑골 *위쪽 7개), 假肋(가늑 *아래쪽 5개), 缺盆骨(결분골), 胛骨(갑골), 膊骨(박골), 撓臂骨(요비골), 直臂骨(직비골), 腕前骨(완전골), 掌骨(장골), 五指骨(오지골), 核骨/胎骨(해골/태골), 臑骨(곤골, 관골), 腸骨(장골), 胯骨(과골), 橫骨(횡골), 髀骨/股骨(비골/고골), 膝蓋(슬개), 內脛骨(내행골), 外脛骨(외행골), 跗(부), 可都骨(호토골), 踵骨(종골), 舟樣骨(주양골), 撓骨(요골), 楔骨(침골), 足背(족배), 足指骨(족지골)

2. 시대별로 해부학 서적과 용어집에 나오는 뼈이름 용어들의 비교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1774년부터 2020년까지 출판된 해부학 서적과 용어집에 나오는 뼈이름 용어들을 검색하고 서

로 비교하였다. Fig. 1과 같이 9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동일하게 사용된 뼈이름 용어들의 수와 그 비율을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Fig. 3).

- 1) 해체신서(1774년)에 나오는 63개의 뼈이름 용어 중에서 246년이 지난 오늘날(의학용어집 제6판, 2020년)까지 동일하게 사용하는 용어는 21개(33.3%)였다.
- 2) 중정해체신서(1826년)에 나오는 57개의 뼈이름 용어 중에서 194년이 지난 오늘날(의학용어집 제6판, 2020년)까지 동일하게 사용하는 용어는 27개(47.4%)였다.
- 3) 제증원 히부학(1906년)에 나오는 71개의 뼈이름 용어 중에서 114년이 지난 오늘날(의학용어집 제6판, 2020년)까지 동일하게 사용하는 용어는 43개(60.5%)였다.
- 4) 소해부학(1962년)에 나오는 78개의 뼈이름 용어 중에서 58년이 지난 오늘날(의학용어집 제6판, 2020년)까지 동일하게 사용하는 용어는 58개(74.3%)였다.
- 5) 해부학용어 6판(2014년)에 나오는 79개의 뼈이름 용어 중에서 6년이 지난 오늘날(의학용어집 제6판, 2020년)까지 동일하게 사용하는 용어는 77개(97.4%)였다.
- 6) 해체신서(1774년)에 있는 52개의 뼈이름 용어 중에서 52년이 지난 1826년에 개정된 중정해체신서에서 동일하게 사용된 용어는 15개(28.8%)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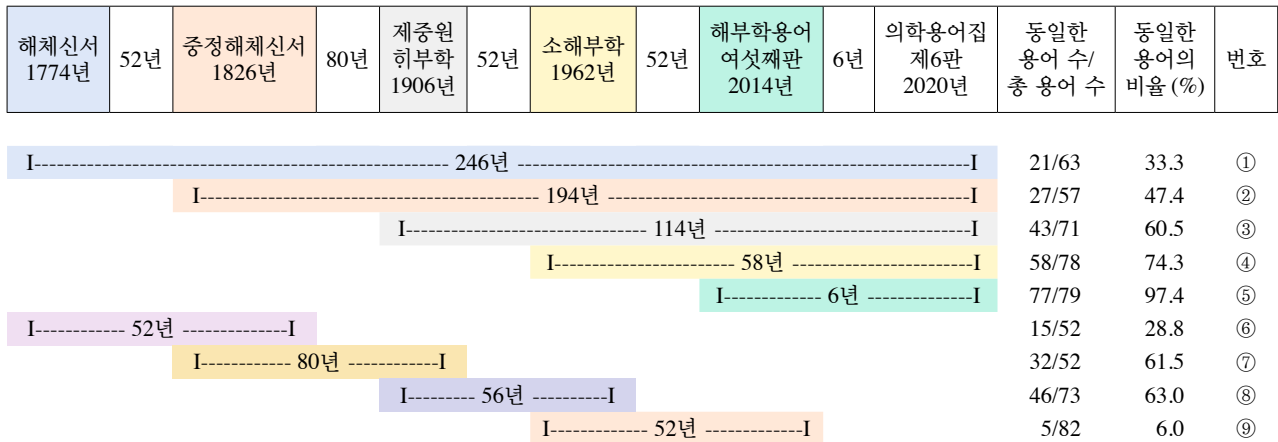


Fig. 3. The number and proportion of bone name terms used identically in the four anatomical textbooks and the two glossaries.

- 중정해체신서(1826년)에 있는 52개의 뼈이름 용어 중에서 80년이 지난 1906년에 발행된 제중원 히부학에서 동일하게 사용된 용어는 32개(61.5%)였다.
- 제중원 히부학(1906년)에 있는 73개의 뼈이름 용어 중에서 56년이 경과된 1962년에 발행된 소해부학에서 동일하게 사용된 용어는 46개(63.0%)였다.
- 소해부학(1962년)에 나오는 82개의 뼈이름 용어 중에서 52년이 경과된 2014년에 발행된 해부학용어 여섯째판에서 동일하게 사용된 용어는 5개(6.0%)였다.

3. 해체신서(1774년)와 의학용어집 제6판(2020년)의 뼈이름 용어 비교

해체신서(1774년) [8]와 의학용어집 제6판(2020년, 대한의사협회) [6]의 뼈이름 용어를 비교한 결과, 해체신서(1774년)에 나오는 총 63개의 뼈이름 용어들(Fig. 2) 중에서 오늘날(의학용어집 제6판, 2020년, 대한의사협회 발행) [6]까지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들은 총 21개였다(Fig. 4). 해체신서에 나오는 뼈이름 용어들은 모두 한문으로 표기되었다. 아래 사례의 괄호 속의 한글은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우리말로 번역하여 표기한 것이다.

사례: 頭蓋(두개), 淚骨(누골), 上顎骨(상악골), 下顎骨(하악골), 舌骨(설골), 鑢骨(등골), 砧骨(침골), 槌骨(추골), 齶齒(구치), 齒牙/齒牙(치아), 犬牙(견치), 脊椎/椎(척추, 추), 腰椎(요추), 肋骨(늑골), 假肋(가늑), 胸骨(흉골), 腸骨(장골), 膝蓋(슬개), 踵骨(종골), 五指骨(오지골), 足指骨(족지골)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우리는 1774년에 처음 일본어(실제로 한문)로 번역된 뼈이름 용어들 중에서 33.3% 정도의 용어들이 246년이 경과된 오늘날(2020년)까지 우리나라에서 사

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 중정해체신서(1826년)와 의학용어집 제6판(2020년)의 뼈이름 용어 비교

스키타 겐파쿠가 저술한 해체신서(1774년)를 김성수가 우리말로 번역하여 2014년에 출판한 한국판 해체신서[8]를 검색하여 중정해체신서(重訂解體新書, 1826년)에 실렸던 것으로 확인된 뼈이름 용어들은 총 57개(머리뼈 22개, 몸통뼈 13개, 팔뼈 9개, 다리뼈 13개)였다. 중정해체신서(1826년) [8]와 의학용어집 제6판(2020년, 대한의사협회) [6]의 뼈이름 용어를 비교한 결과, 중정해체신서에 나오는 뼈이름 용어 중에서 194년이 경과된 오늘날(의학용어집 제6판, 2020년) [6]까지도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들은 총 27개였다(Fig. 5). 즉, 해체신서(1774년) 또는 중정해체신서(1826년 일본어판)에서 사용된 후 의학용어집 제6판(2020년)까지 사용하고 있는 뼈이름 용어들은 모두 27개였다. 중정해체신서에 나오는 뼈이름 용어들은 모두 한문으로 표기되었다. 아래 사례의 괄호 속의 한글은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우리말로 번역하여 표기한 것이다.

사례: 頭蓋(두개), 前頭骨(전두골), 後頭骨(후두골), 篩骨(사골), 淚骨(누골), 口蓋骨(구개골), 舌骨(설골), 鑢骨(등골), 鎚骨(추골), 齒牙(치아), 犬齒(견치), 椎(추), 腰椎(요추), 薦骨(천골), 肋骨(늑골), 眞肋(진늑), 假肋(가늑), 肩胛(견갑), 鎖骨(쇄골), 橈骨(요골), 尺骨(척골), 種子骨(종자골), 無名骨(무명골), 腓骨(비골), 距骨(거골), 指骨(지골), 趾骨(지골)

위 27개 뼈이름 용어들 중에서 중정해체신서(1826년)에서 처음 사용된 후 의학용어집 제6판(2020년)까지 사용되고 있는 뼈이름 용어는 모두 17개였다.

번호	해체신서(1774년)	의학용어집 제6판(2020년)		
		한글 용어		영어 용어
		구용어	신용어	
1	頭蓋/두개	두개	머리뼈	Cranium/Skull
2	淚骨/누골	누골	눈물뼈	Lacrimal bone
3	上顎骨/상악골	상악골	위턱뼈	Maxilla
4	下顎骨/하악골	하악골	아래턱뼈	Mandible
5	舌骨/설골	설골	목뿔뼈	Hyoid bone
6	鐙骨/등골	등골	등자뼈	Stapes
7	砧骨/침골	침골	모루뼈	Incus
8	槌骨/추골	추골	망치뼈	Malleus
9	齧齒/구치	대구치	큰어금니	Molar tooth
10	齒牙(齒牙)/치아	치	이	Teeth
11	犬牙(眼牙)/견아(안아)	견치	송곳니	Canine tooth
12	脊椎(椎)/척추(추)	척추	척추	Vertebra
13	腰椎/요추	요추	허리뼈	Lumbar vertebra
14	肋骨/늑골 *위쪽 7개	늑골	갈비뼈	Rib
15	假肋/가늑 *아래쪽 5개	가늑	거짓갈비뼈	False rib
16	胸骨/흉골	흉골	복장뼈	Sternum
17	腸骨/장골	장골	엉덩뼈	Ilium
18	膝蓋/슬개	슬개골	무릎뼈	Patella
19	踵骨/종골	종골	발꿈치뼈	Calcaneus
20	五指骨/오지골	지골	손가락뼈	Phalanx
21	足指骨/족지골	지골	발가락뼈	Phalanx

Fig. 4. Among the anatomical terms of bone name in Kaitai Shinsho (1774), the same terms appear in Korean Medical Terminology (6th edition, 2020).

사례: 前頭骨(전두골), 後頭骨(후두골), 篩骨(사골), 口蓋骨(구개골), 鑿骨(추골), 犬齒(견치), 薦骨(천골), 眞肋(진륵), 肩胛(견갑), 鎖骨(쇄골), 橈骨(요골), 尺骨(척골), 種子骨(종자골), 無名骨(무명골), 腓骨(비골), 距骨(거골), 趾骨(지골)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우리는 1826년 일본에서 출판된 중정해체신서에 나오는 뼈이름 용어들 중에서 47.4% 정도의 용어들이 194년이 경과된 오늘날(2020년)까지도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5. 제중원 히부학(1906년)과 의학용어집 제6판(2020년)의 뼈이름 용어 비교

국립한글박물관에서 2016년에 출판한 ‘해부학 1’의 자료편과 주석편을 이용하여 제중원 히부학(1906년)[11]에 나오는 뼈이름 용어를 검색한 결과, 사람 뼈이름 용어들은 총 71개(머리뼈 20개, 몸통뼈 14개, 팔뼈 17개, 다리뼈 20개)였다. 제중원 히부학(1906년)[11]과 의학용어집 제6판(2020년, 대한의사협회) [6]의 뼈이름 용어를 비교한 결과, 제중원 히부학의 뼈이름 용어들 중에서 오늘날(의학용어집 제6판, 2020

년)까지 사용되고 있는 용어들은 총 43개였다(Fig. 6). 제중원 히부학에서는 사람 몸의 명칭이나 구조, 특성을 우리말 어휘와 문장으로 풀이하였고, 필요한 경우 한글 번역어를 한자로 표기하였고 일부에서는 영어도 병기했다.

해체신서(1774년) 또는 중정해체신서(1826년), 제중원 히부학(1906년, 한국어판)에서 사용한 후 의학용어집 제6판(2020년)까지 사용되고 있는 뼈이름 용어는 모두 43개였다. 참고로 척추(脊椎)의 ‘추(椎)’를 ‘퇴’로 표기한 것은 당시의 한자 발음 체계와 의학적 용어의 관습이 반영된 결과였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같은 한문 ‘椎’를 사용하였지만, 우리말로 ‘추’ 또는 ‘퇴’로 표기한 경우에는 동일한 뼈이름 용어로 판단했다.

사례: 두개(頭蓋), 뇌두개(腦頭蓋), 전두골(前頭骨), 후두골(後頭骨), 소골(篩骨), 하비지골(下卑甲骨), 루골(淚骨), 셔골(鋤骨), 상악골(上顎骨), 하악골(下顎骨), 구개골(口蓋骨), 설골(舌骨), 척주(등뼈), 퇴골(椎骨), 경퇴(頸椎), 데일경퇴(第一頸椎), 데이경퇴(第二頸椎), 흥퇴(脛椎), 요퇴(腰椎), 천골(薦骨), 릑골(肋骨), 진륵(眞肋), 가늑(假肋), 흥

번호	증정해체신서(1826년)	의학용어집 제6판(2020년)		
		구용어	한글 용어	영어 용어
1	頭蓋/두개	두개	머리뼈	Cranium/Skull
2	前頭骨/전두골	전두골	이마뼈	Frontal bone
3	後頭骨/후두골	후두골	뒤통수뼈	Occipital bone
4	篩骨/사골	사골	벌집뼈	Ethmoid bone
5	淚骨/누골	누골	눈물뼈	Lacrimal bone
6	口蓋骨/구개골	구개골	입천장뼈	Palatine bone
7	舌骨/설골	설골	목뿔뼈	Hyoid bone
8	鐙骨/등골	등골	등자뼈	Stapes
9	鎚骨/추골	추골	망치뼈	Malleus
10	齒牙/치아	치	이	Teeth
11	犬齒/견치	견치	송곳니	Canine tooth
12	椎/추	척추	척추	Vertebra
13	腰椎/요추	요추	허리뼈	Lumbar vertebra
14	薦骨/천골	천골	엉치뼈	Sacrum
15	肋骨/늑골	늑골	갈비뼈	Rib
16	眞肋/진륑 *위쪽 7개	진륑	참갈비뼈	True rib
17	假肋/가륑 *아래쪽 5개	가륑	거짓갈비뼈	False rib
18	肩胛/견갑	견갑골	어깨뼈	Scapula
19	鎖骨/쇄골	쇄골	빗장뼈	Clavicle
20	橈骨/요골	요골	노뼈	Radius
21	尺骨/척골	척골	자뼈	Ulna
22	種子骨/종자골	종자골	종자뼈	Sesamoid bone
23	指骨/지골	지골	손가락뼈	Phalanx
24	無名骨/무명골	무명뼈	볼기뼈	Hip bone/Innominate bone
25	腓骨/비골	비골	종아리뼈	Fibula
26	距骨/거골	거골	목말뼈	Talus
27	趾骨/지골	지골	발가락뼈	Phalanx

Fig. 5. Among the anatomical terms of bone name in Revised Kaitai Shinsho (1826), the same terms appear in Korean Medical Terminology (6th edition, 2020).

골(胛骨), 견갑골(肩胛骨), 쇄골(鎖骨), 노골(橈骨), 척골(尺骨), 지골(指骨), 종주골, 무명골(無名骨), 장골(腸骨), 좌골(坐骨), 치골(趾骨), 골반(骨盤), 대퇴골(大腿骨), 슬개골(膝蓋骨), 경골(脛骨), 비골(腓骨), 거골(距骨), 주상골(舟狀骨), 설상골(楔狀骨), 지골(趾骨)

위 43개의 뼈이름 용어들 중에서 제증원 히부학(1906년)에서 처음 사용된 후 의학용어집 제6판(2020년)까지 사용되고 있는 뼈이름 용어는 모두 16개였다.

사례: 뇌두개(腦頭蓋), 하비기골(下卑甲骨), 셔골(鋤骨), 척주(등뼈), 경퇴(頸椎), 데일경퇴(第一頸椎), 데이경퇴(第二頸椎), 흥퇴(胛椎), 흥골(胛骨), 좌골(坐骨), 치골(趾骨), 골반(骨盤), 대퇴골(大腿骨), 경골(脛骨), 주상골(舟狀骨),

설상골(楔狀骨)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1906년에 출판된 제증원 히부학에서 사용된 뼈이름 용어들 중에서 60.5% 정도의 용어가 제증원 히부학이 출판되고 114년(참고로 1888년에 간행된 일본어 서적 ‘실용해부학’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130년이 경과됨)이 경과된 오늘날(2020년)까지도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6. 소해부학(1962년)과 의학용어집 제6판(2020년)의 뼈이름 용어 비교

소해부학(小解剖學, 1962년) [12]에서 확인된 총 78개(머리뼈 27개, 몸통뼈 14개, 팔뼈 17개, 다리뼈 20개)의 뼈이

번호	제증원 히부학(1906년)	의학용어집 제6판(2020년)		
		구용어	한글 용어 신용어	영어 용어
1	두개(頭蓋)	두개	머리뼈	Cranium/Skull
2	뇌두개(腦頭蓋)	뇌두개골	뇌머리뼈	Neurocranium/Cerebral cranium
3	전두골(前頭骨)	전두골	이마뼈	Frontal bone
4	후두골(後頭骨)	후두골	뒤통수뼈	Occipital bone
5	수골(篩骨)	사골	벌집뼈	Ethmoid bone
6	하비기골(下卑甲骨)	하비갑개	아래코선반	Inferior nasal concha
7	루골(淚骨)	누골	눈물뼈	Lacrimal bone
8	서골(鋤骨)	서골	보습뼈	Vomer
9	상악골(上顎骨)	상악골	위턱뼈	Maxilla
10	구개골(口蓋骨)	구개골	입천장뼈	Palatine bone
11	하악골(下顎骨)	하악골	아래턱뼈	Mandible
12	설골(舌骨)	설골	목뿔뼈	Hyoid bone
13	척주(등뼈)	척주	등골뼈	Vertebral column
14	퇴골(椎骨)	척추	척추	Vertebra
15	경퇴(頸椎)	경추	목뼈	Cervical vertebra
16	데일경퇴(第一頸椎)	환추	첫째목뼈/고리뼈	Atlas (C I)
17	데이경퇴(第二頸椎)	축추	둘째목뼈/중쇠뼈	Axis (C II)
18	흉퇴(胸椎)	흉추	등뼈	Thoracic vertebra
19	요퇴(腰椎)	요추	허리뼈	Lumbar vertebra
20	천골(薦骨)	천골	엉치뼈	Sacrum
21	늑골(肋骨)	늑골	갈비뼈	Ribs
22	진늑(眞肋) * 위쪽 7개	진늑	참갈비뼈	True rib
23	가늑(假肋) * 아래쪽 5개	가늑	거짓갈비뼈	False rib
24	흉골(胸骨)	흉골	복장뼈	Sternum
25	견갑골(肩胛骨)	견갑골	어깨뼈	Scapula
26	쇄골(鎖骨)	쇄골	빗장뼈	Clavicle
27	노골(橈骨)	요골	노뼈	Radius
28	척골(尺骨)	척골	자뼈	Ulna
29	지골(指骨)	지골	손가락뼈	Phalanx
30	종조골(無名骨)	종자골	종자뼈	Sesamoid bone
31	무명골(無名骨)	무명뼈	볼기뼈	Hip bone/Innominate bone
32	장골(腸骨)	장골	엉덩뼈	Ilium
33	좌골(坐骨)	좌골	궁둥뼈	Ischium
34	치골(耻骨)	치골	두덩뼈	Pubis
35	골반(骨盤)	골반	골반	Pelvis
36	대퇴골(大腿骨)	대퇴골	넓적다리뼈/넙다리뼈	Femur
37	슬개골(膝蓋骨)	슬개골	무릎뼈	Patella
38	경골(脛骨)	경골	정강뼈	Tibia
39	비골(腓骨)	비골	종아리뼈	Fibula
40	거골(距骨)	거골	목말뼈	Talus
41	주상골(舟狀骨)	주상골	발배뼈	Navicular
42	설상골(楔狀骨)	설상골	쐐기뼈	Cuneiform
43	지골(趾骨)	지골	발가락뼈	Phalanx

Fig. 6. Among the anatomical terms of bone name in Anatomy of Jejungwon (1906, translated version of Practical anatomy; Imada S. ed. 1887~1888), the same terms appear in Korean Medical Terminology (6th edition, 2020).

번호	소해부학(1962년)	의학용어집 제6판(2020년)		
		구용어	한글 용어 신용어	영어 용어
1	頭蓋/두개	두개	머리뼈	Cranium/Skull
2	腦頭蓋/뇌두개	뇌두개골	뇌머리뼈	Neurocranium
3	頭頂骨/두정골	두정골	마루뼈	Parietal bone
4	前頭骨/전두골	전두골	이마뼈	Frontal bone
5	後頭骨/후두골	후두골	뒤통수뼈	Occipital bone
6	蝶形骨/접형골	접형골	나비뼈	Sphenoid bone
7	側頭骨/측두골	측두골	관자뼈	Temporal bone
8	篩骨/사골	사골	벌집뼈	Ethmoid bone
9	下卑甲骨/하비갑골	하비갑개	아래코선반	Inferior nasal concha
10	淚骨/누골	누골	눈물뼈	Lacrimal bone
11	鋤骨/서골	서골	보습뼈	Vomer
12	上顎骨/상악골	상악골	위턱뼈	Maxilla
13	口蓋骨/구개골	구개골	입천장뼈	Palatine bone
14	下顎骨/하악골	하악골	아래턱뼈	Mandible
15	舌骨/설골	설골	목뿔뼈	Hyoid bone
16	耳小骨/이소골	이소골	귓속뼈	Auditory ossicle
17	鐙骨/등골	등골	등자뼈	Stapes
18	砧骨/침골	침골	모루뼈	Incus
19	槌骨/추골	추골	망치뼈	Malleus
20	齒(牙)/치(아)	치	이	Teeth
21	犬齒/견치	견치	송곳니	Canine tooth
22	大臼齒/대구치	대구치	큰어금니	Molar tooth
23	小臼齒/소구치	소구치	작은어금니	Premolar tooth
24	脊柱/척주	척주	등골뼈	Vertebral column
25	椎/추	척추	척추	Vertebra
26	頸椎/경추	경추	목뼈	Cervical vertebra
27	環推/환추	환추	첫째목뼈/고리뼈	Atlas (C I)
28	軸推/축추	축추	둘째목뼈/중쇠뼈	Axis (C II)
29	胸椎/흉추	흉추	등뼈	Thoracic vertebra
30	腰椎/요추	요추	허리뼈	Lumbar vertebra
31	尾椎/미추	미추	꼬리뼈	Coccyx
32	肋骨/늑골	늑골	갈비뼈	Rib
33	眞肋/진륵 *위쪽 7개	진륵	참갈비뼈	True Rib
34	假肋/가륵 *아래쪽 5개	가륵	거짓갈비뼈	False Rib
35	胸骨/흉골	흉골	복장뼈	Sternum
36	肩胛骨/견갑골	견갑골	어깨뼈	Scapula
37	鎖骨/쇄골	쇄골	빗장뼈	Clavicle
38	上腕骨/상완골	상완골	위팔뼈	Humerus
39	橈骨/요골	요골	노뼈	Radius
40	尺骨/척골	척골	자뼈	Ulna
41	手根骨/수근골	수근골	손목뼈	Carpal bone
42	中手骨/중수골	중수골	손허리뼈	Metacarpal bone
43	指骨/지골	지골	손가락뼈	Phalanx
44	種子骨/종자골	종자골	종자뼈	Sesamoid bone

Fig. 7. Among the anatomical terms of bone name in Anatomia Minor (1962), the same terms appear in Korean Medical Terminology (6th edition, 2020).

번호	소해부학(1962년)	의학용어집 제6판(2020년)		
		구용어	한글 용어 신용어	영어 용어
45	腸骨/장골	장골	엉덩뼈	Ilium
46	坐骨/좌골	좌골	궁둥뼈	Ischium
47	耻骨/치골	치골	두덩뼈	Pubis
48	大腿骨/대퇴골	대퇴골	넓적다리뼈/넙다리뼈	Femur
49	膝蓋骨/슬개골	슬개골	무릎뼈	Patella
50	脛骨/경골	경골	정강뼈	Tibia
51	腓骨/비골	비골	종아리뼈	Fibula
52	足根骨/족근골	족근골	발목뼈	Tarsal bone
53	距骨/거골	거골	목말뼈	Talus
54	踵骨/종골	종골	발꿈치뼈	Calcaneus
55	舟狀骨/주상골	주상골	발배뼈	Navicular
56	楔狀骨/설상골	설상골	췌기뼈	Cuneiform
57	中足骨/중족골	중족골	발허리뼈	Metatarsals
58	趾骨/지골	지골	발가락뼈	Phalanx

Fig. 7. Continued.

름 용어들 중에서 오늘날(의학용어집 제6판, 2020년, 대한 의사협회 발행) [6]까지 사용되고 있는 용어는 총 58개였다 (Fig. 7).

해체신서(1774년) 또는 중정해체신서(1826년), 제증원의 허부학(1906년), 소해부학(1962년)에서 사용된 후 의학용어집 제6판(2020년)까지 사용되고 있는 뼈이름 용어는 모두 58개였다. 소해부학에서 본문 내용은 한글로 기술되었지만 해부학용어들은 대부분 한자로 표기하였다. 아래 사례의 괄호 속의 한글은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우리말로 번역하여 표기한 것이다.

사례: 頭蓋(두개), 뇌두개(腦頭蓋), 頭頂骨(두정골), 前頭骨(전두골), 後頭骨(후두골), 蝶形骨(접형골), 側頭骨(측두골), 篩骨(사골), 하비기골(下卑甲骨), 淚骨(누골), 셔골(鋤骨), 上顎骨(상악골), 口蓋骨(구개골), 下顎骨(하악골), 舌骨(설골), 耳小骨(이소골), 鑰骨(등골), 砧骨(침골), 槌骨(추골), 齒牙(치아), 犬齒(견치), 大白齒(대구치), 小白齒(소구치), 脊柱(척주), 椎(추), 頸椎(경추), 環推(환추), 軸椎(축추), 胸椎(흉추), 腰椎(요추), 尾椎(미추), 肋骨(늑골), 眞肋(진릭), 假肋(가릭), 胸骨(흉골), 肩胛骨(견갑골), 鎖骨(쇄골), 上腕骨(상완골), 橈骨(요골), 尺骨(척골), 手根骨(수근골), 中手骨(중수골), 指骨(지골), 種子骨(종자골), 腸骨(장골), 좌골(坐骨), 치골(耻骨), 대퇴골(大腿骨), 슬개골(膝蓋骨), 경골(脛骨),腓骨(비골), 足根骨(족근골), 距骨(거골), 踵骨(종골), 주상골(舟狀骨), 설상골(楔狀骨), 中足骨(중족골), 趾骨(지골)

위 58개 뼈이름 용어들 중에서 소해부학(1962년)에서 처음 사용된 후 의학용어집 제6판(2020년)까지 사용되고 있는 뼈이름 용어는 모두 16개였다.

사례: 頭頂骨(두정골), 蝶形骨(접형골), 側頭骨(측두골), 耳小骨(이소골), 大白齒(대구치), 小白齒(소구치), 脊柱(척주), 環推(환추), 軸椎(축추), 胸椎(흉추), 尾椎(미추), 上腕骨(상완골), 手根骨(수근골), 中手骨(중수골), 足根骨(족근골), 中足骨(중족골)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우리는 1962년에 출판된 소해부학에서 사용된 뼈이름 용어들 중에서 74.3% 정도의 용어들이 소해부학이 출판된 후 58년이 경과한 오늘날(2020년)까지도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7. 해부학용어 여섯째판(2014년)과 의학용어집 제6판(2020년)의 뼈이름 용어 비교

해부학용어 여섯째판(2014년) [2]에서 확인된 총 79개(머리뼈 27개, 몸통뼈 15개, 팔뼈 17개, 다리뼈 20개)의 뼈이름 용어들 중에서 오늘날(의학용어집 제6판, 2020년) [6]까지 사용하고 있는 뼈이름 용어는 모두 77개였다(Figs. 8, 9). 전체 79개 중에서 2개 용어만 서로 달랐고, 77개는 동일하였다(Fig. 8). 해부학용어 여섯째판(2014년)에서 뼈이름 용어를 포함한 해부학용어들은 모두 우리말 신용어로만 표기되었고, 의학용어집 제6판(2020년)에서 해부학용어를 포함한 의학용어들은 우리말 구용어(한자식 한글 용어)와 신용어(우리말

번호	해부학용어 여섯째판(2014년)	의학용어집 제6판(2020년)		
		한글 용어		영어 용어
		구용어	신용어	
1	코선반뼈	하비갑개	아래코선반	Inferior nasal concha
2	숫을뼈/일곱째목뼈	돌출척추	숫은뼈	Vertebra prominens

Fig. 8. Among the anatomical terms of bone name in Korean Anatomical Terminology (6th edition, 2014), two different terms appear in Korean Medical Terminology (6th edition, 2020).

번호	해부학용어 여섯째판(2014년)	의학용어집 제6판(2020년)		
		한글 용어		영어 용어
		구용어	신용어	
1	머리뼈	두개	머리뼈	Cranium/Skull
2	뇌머리뼈	뇌두개골	뇌머리뼈	Neurocranium
3	마루뼈	두정골	마루뼈	Parietal bone
4	이마뼈	전두골	이마뼈	Frontal bone
5	뒤통수뼈	후두골	뒤통수뼈	Occipital bone
6	나비뼈	접형골	나비뼈	Sphenoid bone
7	관자뼈	측두골	관자뼈	Temporal bone
8	별집뼈	사골	별집뼈	Ethmoid bone
9	눈물뼈	누골	눈물뼈	Lacrimal bone
10	코뼈	none	코뼈	Nasal bone
11	보습뼈	서골	보습뼈	Vomer
12	위턱뼈	상악골	위턱뼈	Maxilla
13	입천장뼈	구개골	입천장뼈	Palatine bone
14	광대뼈	none	광대뼈	Zygomatic bone
15	아래턱뼈	하악골	아래턱뼈	Mandible
16	목뼈	설골	목뼈	Hyoid bone
17	귓속뼈	이소골	귓속뼈	Auditory ossicle
18	등자뼈	등골	등자뼈	Stapes
19	모루뼈	침골	모루뼈	Incus
20	망치뼈	추골	망치뼈	Malleus
21	이(치아)	치	이	Teeth
22	앞니	none	앞니	Incisor tooth
23	송곳니	견치	송곳니	Canine tooth
24	큰어금니	대구치	큰어금니	Molar tooth
25	작은어금니	소구치	작은어금니	Premolar tooth
26	사랑니	none	사랑니	Wisdom tooth
27	척추	척추	등골뼈	Vertebral column
28	척주뼈, 척추	척추	척추	Vertebra
29	목(척추)뼈	경추	목뼈	Cervical vertebra
30	고리뼈, 첫째목뼈	환추	고리뼈/첫째목뼈	Atlas (C I)
31	중쇠뼈, 둘째목뼈	축추	중쇠뼈/둘째목뼈	Axis (C II)
32	등(척추)뼈	흉추	등뼈	Thoracic vertebra

Fig. 9. Among the anatomical terms of bone name in Korean Anatomical Terminology (6th edition, 2014), the same terms appear in Korean Medical Terminology (6th edition, 2020).

번호	해부학용어 여섯째판(2014년)	의학용어집 제6판(2020년)		
		구용어	한글 용어 신용어	영어 용어
33	허리(척추)뼈	요추	허리뼈	Lumbar vertebra
34	엉치뼈	천골	엉치뼈	Sacrum
35	꼬리뼈	미추	꼬리뼈	Coccyx
36	갈비뼈	늑골	갈비뼈	Rib
37	참갈비뼈	진늑골	참갈비뼈	True rib
38	거짓갈비뼈	가성늑골	거짓갈비뼈	False rib
39	뜬갈비뼈	부유늑골	뜬갈비뼈	Floating rib
40	복장뼈	흉골	복장뼈	Sternum
41	어깨뼈	견갑골	어깨뼈	Scapula
42	빗장뼈	쇄골	빗장뼈	Clavicle
43	위팔뼈	상완골	위팔뼈	Humerus
44	노뼈	요골	노뼈	Radius
45	자뼈	척골	자뼈	Ulna
46	손목뼈	수근골	손목뼈	Carpal bone
47	손배뼈	주상골	손배뼈	Scaphoid
48	반달뼈	월상골	반달뼈	Lunate
49	세모뼈	삼각골	세모뼈	Triquetrum
50	콩알뼈	두상골	콩알뼈	Pisiform
51	큰마름뼈	대능형골	큰마름뼈	Trapezium
52	작은마름뼈	소능형골	작은마름뼈	Trapezoid
53	알머리뼈	유두골	알머리뼈	Capitate
54	갈고리뼈	유구골	갈고리뼈	Hamate
55	손허리뼈	중수골	손허리뼈	Metacarpal bone
56	손가락뼈	none	손가락뼈	Phalanges
57	종자뼈	종자골	종자뼈	Sesamoid bone
58	볼기뼈	무명뼈	볼기뼈	Hip bone/Innominate bone
59	엉덩뼈	장골	엉덩뼈	Ilium
60	궁둥뼈	좌골	궁둥뼈	Ischium
61	두덩뼈	치골	두덩뼈	Pubis
62	골반	골반	골반	Pelvis
63	넙다리뼈	대퇴골	넙다리뼈/넙다리뼈	Femur
64	무릎뼈	슬개골	무릎뼈	Patella
65	정강뼈	경골	정강뼈	Tibia
66	종아리뼈	비골	종아리뼈	Fibula
67	발목뼈	족근골	발목뼈	Tarsal bone
68	목말뼈	거골	목말뼈	Talus
69	발꿈치뼈	종골	발꿈치뼈	Calcaneus
70	발배뼈	주상골	발배뼈	Navicular
71	췌기뼈	설상골	췌기뼈	Cuneiform
72	안쪽췌기뼈	내측설상골	안쪽췌기뼈	Cuneiform Medial
73	중간췌기뼈	중간설상골	중간췌기뼈	Cuneiform Intermediate
74	가쪽췌기뼈	외측설상골	가쪽췌기뼈	Cuneiform Lateral
75	입방뼈	none	입방뼈	Cuboid
76	발허리뼈	중족골	발허리뼈	Metatarsal
77	발가락뼈	none	발가락뼈	Phalanx

Fig. 9. Continued.

용어)를 함께 표기했다.

사례 1. Inferior nasal concha: 코선반뼈(해부학용어 여섯째 판, 2014년) → 아래코선반/하비갑개(의학용어집 제6판, 2020년)

사례 2. Vertebra prominens (C VII): 솓을뼈/일곱째목뼈(해부학용어 여섯째판, 2014년) → 돌출척추/솓은뼈(의학용어집 제6판, 2020년)

참조: ‘Vertebra prominens’의 한글 용어 ‘솓은뼈’는 의학용어집 제6판(2020년)에 나오고, ‘솓을뼈’는 해부학용어 4판(1996년)과 5판(2005년), 6판(2014년)에 있음.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우리는 2014년에 출판된 해부학용어 여섯째판(2014년)에서 사용된 뼈이름 용어들 중에서 97.4% 정도의 용어들이 6년이 경과된 오늘날(2020년)까지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8. 해체신서(1774년)와 중정해체신서(1826년)의 뼈이름 용어 비교

해체신서(1774년)와 중정해체신서(1826년)에서 모두 확인된 뼈이름 용어들은 총 52개(머리뼈 22개, 몸통뼈 10개, 팔뼈 9개, 다리뼈 11개)였고, 이들 중에서 동일한 것은 총 15개였다(Fig. 10) [7,8]. 해체신서와 중정해체신서에서 뼈이름 용어들은 모두 한문으로 표기되었다. 아래 사례의 괄호 속의 한글은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우리말로 번역하여 표기한 것이다.

사례: 淚骨(누골), 舌骨(설골), 鑢骨(등골), 鑢骨(질골), 椎(추), 項椎(항추), 回轉(회전), 背椎(배추), 腰椎(요추), 肋骨(늑골), 假肋(가늑), 五指骨(오지골), 股骨(고골), 舟樣骨(주양골), 櫛骨(침골)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해체신서에서 사용된 일본어(실제로 한자)의 뼈이름 용어들 중에서 28.8% 정도만 중정해체신서에서 사용되었고, 나머지 72.2% 정도의 뼈이름 용어들이 변경된 것을 알 수 있었다(Fig. 10). 해체신서가 1774년에 출판된 후 52년이 지난 1826년에 중정해체신서가 출판되었기 때문에 비교적 짧은 기간에 많은 뼈이름 용어들이 변경되었다.

9. 중정해체신서(1826년)와 제증원 허부학(1906년)의 뼈이름 용어 비교

중정해체신서(1826년)가 출판된 후 80년이 지난 1906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해부학 교과서인 제증원 해부학이 한글(실제로 해부학용어는 한문 병기 표기)로 출판되었다[8,11]. 중정해체신서(1826년) [7,8]에 나오는 52개(머리뼈 17개, 몸통뼈 13개, 팔뼈 9개, 다리뼈 13개)의 뼈이름 용어들 중에서 80년이 경과한 후 1906년에 발행된 제증원의 해부학에서 확인된 동일한 뼈이름 용어는 총 32개였다(Fig. 11).

사례: 頭蓋骨(두개골), 腦蓋(뇌개), 前頭骨(전두골), 後頭骨(후두골), 顳顬(섭유), 篩骨(사골), 淚骨(누골), 鼻骨(비골), 口蓋骨(구개골), 舌骨(설골), 犬齒(견치), 椎(추), 載域(재

번호	해체신서 (1774년)	중정해체신서 (1826년)	의학용어집 제6판(2020년)		
			한글 용어	영어 용어	
			구용어	신용어	
1	淚骨/누골	淚骨/누골	누골	눈물뼈	Lacrima bone
2	舌骨/설골	舌骨/설골	설골	목뿔뼈	Hyoid bone
3	鑢骨/등골	鑢骨/등골	등골	등자뼈	Stapes
4	鑢骨/질골	鑢骨/질골	침골	모루뼈	Incus
5	椎/추	椎/추	척추	척추	Vertebra
6	項椎/항추	項椎/항추	경추	목뼈	Cervical vertebra
7	回轉/회전	回轉/회전	축추	중쇠뼈/둘째목뼈	Axis (C II)
8	背椎/배추	背椎/배추	흉추	등뼈	Thoracic vertebra
9	腰椎/요추	腰椎/요추	요추	허리뼈	Lumbar vertebra
10	肋骨/늑골 *위쪽 7개	肋骨/늑골	늑골	갈비뼈	Rib
11	假肋/가늑 *아래쪽 5개	假肋/가늑 *아래쪽 5개	가늑	거짓갈비뼈	False rib
12	五指骨/오지골	五指骨/오지골	지골	손가락뼈	Phalanx
13	股骨/고골	股骨/고골	대퇴골	넓적다리뼈/넙다리뼈	Femur
14	舟樣骨/주양골	舟樣骨/주양골	주상골	발배뼈	Navicular
15	櫛骨/침골	櫛骨/침골	설상골	췌기뼈	Cuneiform

Fig. 10. Among the anatomical terms of bone name in Kaitai Shinsho(1774), the same terms appear in Revised Kaitai Shinsho(1826).

번호	중정해체신서 (1826년)	제증원의 히부학 (1906년)	의학용어집 제6판(2020년)		
			한글 용어	영어 용어	
			구용어	신용어	
1	頭蓋骨/두개골	두개(頭蓋)	두개	머리뼈	Cranium/Skull
2	腦蓋/뇌개	뇌두개(腦頭蓋)	뇌두개골	뇌머리뼈	Neurocranium
3	前頭骨/전두골	전두골(前頭骨)	전두골	이마뼈	Frontal bone
4	後頭骨/후두골	후두골(後頭骨)	후두골	뒤통수뼈	Occipital bone
5	顳顬/섭유	섭유골(顳顬骨)	측두골	관자뼈	Temporal bone
6	篩骨/사골	수골(篩骨)	사골	벌집뼈	Ethmoid bone
7	淚骨/누골	루골(淚骨)	누골	눈물뼈	Lacrima bone
8	鼻骨/비골	비골(鼻骨)	none	코뼈	Nasal bone
9	口蓋骨/구개골	구개골(口蓋骨)	구개골	입천장뼈	Palatine bone
10	舌骨/설골	설골(舌骨)	설골	목뿔뼈	Hyoid bone
11	犬齒/견치	견치(犬齒)	견치	송곳니	Canine tooth
12	椎/추	퇴골(椎骨)	척추	척추	Vertebra
13	載域/재역	지역(載域)	환추	고리뼈/첫째목뼈	Atlas (C I)
14	腰椎/요추	요퇴(腰椎)	요추	허리뼈	Lumbar vertebra
15	薦骨/천골	천골(薦骨)	천골	엉치뼈	Sacrum
16	肋骨/늑골	룩골(肋骨)	늑골	갈비뼈	Rib
17	眞肋/진룩	진룩(眞肋)	진늑골	참갈비뼈	True rib
18	假肋/가룩	가룩(假肋)	가룩	거짓갈비뼈	False rib
19	肩胛/견갑	견갑골(肩胛骨)	견갑골	어깨뼈	Scapula
20	鎖骨/쇄골	쇄골(鎖骨)	쇄골	빗장뼈	Clavicle
21	膊骨/박골	상박골(上膊骨)	상완골	위팔뼈	Humerus
22	橈骨/요골	노골(橈骨)	요골	노뼈	Radius
23	尺骨/척골	척골(尺骨)	척골	자뼈	Ulna
24	腕骨/완골	완골(腕骨)	수근골	손목뼈	Carpal bone
25	指骨/지골	지골(指骨)	none	손가락뼈	Phalanges
26	種子骨/종자골	종주골(種子骨)	종자골	종자뼈	Sesamoid bone
27	無名骨/무명골	무명골(無名骨)	무명뼈	볼기뼈	Hip bone/Innominate bone
28	腓骨/비골	비골(腓骨)	비골	종아리뼈	Fibula
29	距骨/거골	거골(距骨)	거골	목말뼈	Talus
30	跟骨/근골	근골(跟骨)	종골	발꿈치뼈	Calcaneus
31	骰子骨/투자골	투주골(骰子骨)	none	입방뼈	Cuboid
32	趾骨/지골	지골(趾骨)	none	발가락뼈	Phalanx

Fig. 11. Among the anatomical terms of “bone name” in Revised Kaitai Shinsho (1826), the same terms appear in Anatomy of Jejungwon (1906, translated version of Practical anatomy; Imada S. ed. 1887~1888).

역), 腰椎(요추), 薦骨(천골), 肋骨(늑골), 眞肋(진룩), 假肋(가룩), 肩胛(견갑), 鎖骨(쇄골), 膊骨(박골), 橈骨(요골), 尺骨(척골), 腕骨(완골), 指骨(지골), 種子骨(종자골), 無名骨(무명골), 腓骨(비골), 距骨(거골), 跟骨(근골), 骰子骨(투자골), 趾骨(지골)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제증원 히부학에 실린 한글(괄호 속에 한문 용어 병기)의 뼈이름 용어는 중정해체신서에 나오는 용어들 중에서 61.5% 정도가 동일했고, 나머지 38.5%의 뼈

이름 용어들이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10. 제증원 히부학(1906년)과 소해부학(1962년)의 뼈이름 용어 비교

제증원 히부학이 1906년 대한제국 시대에 한글로 출판된 후 56년이 지난 1962년에 대한민국에서 소해부학이 출판되었다. 제증원 히부학(1906년) [11]과 소해부학(1962년) [12]에 모두 실린 뼈이름 용어는 73개(머리뼈 21개, 몸통뼈 13

번호	제중원 히부학 (1906년)	소해부학 (1962년)	의학용어집 제6판(2020년)		
			한글 용어		영어 용어
			구용어	신용어	
1	두개(頭蓋)	頭蓋骨/두개골	두개	머리뼈	Cranium/Skull
2	뇌두개(腦頭蓋)	腦頭蓋/뇌두개	뇌두개골	뇌머리뼈	Neurocranium
3	안면두개(顔面頭蓋)	顔面頭蓋/안면두개	내장두개골	얼굴머리뼈	Viscerocranium
4	전두골(前頭骨)	前頭骨/전두골	전두골	이마뼈	Frontal bone
5	후두골(後頭骨)	後頭骨/후두골	후두골	뒤통수뼈	Occipital bone
6	수골(篩骨)	篩骨/사골	사골	벌집뼈	Ethmoid bone
7	루골(淚骨)	淚骨/누골	누골	눈물뼈	Lacrimal bone
8	비골(鼻骨)	鼻骨/비골	none	코뼈	Nasal bone
9	서골(鋤骨)	鋤骨/서골	서골	보습뼈	Vomer
10	상악골(上顎骨)	上顎骨/상악골	상악골	위턱뼈	Maxilla
11	구개골(口蓋骨)	口蓋骨/구개골	구개골	입천장뼈	Palatine bone
12	하악골(下顎骨)	下顎骨/하악골	하악골	아래턱뼈	Mandible
13	설골(舌骨)	舌骨/설골	설골	목뿔뼈	Hyoid bone
14	치아(齒牙)	齒(牙)/치(아)	치	이	Teeth
15	견치(犬齒)	犬齒/견치	견치	송곳니	Canine tooth
16	척주(등뼈)/脊柱)	脊柱/척주	척주	척주	Vertebral column
17	퇴골(椎骨)	椎骨/추골	척추	척추	Vertebra
18	경퇴(頸椎)	頸椎/경추	경추	목뼈	Cervical vertebra
19	요퇴(腰椎)	腰椎/요추	요추	허리뼈	Lumbar vertebra
20	천골퇴(薦骨椎)	薦椎/천추	천골	엉치뼈	Sacrum
21	늑골(肋骨)	肋骨/늑골	늑골	갈비뼈	Rib
22	진늑(眞肋)	眞肋/진늑	진늑	참갈비뼈	True rib
23	가늑(假肋)	假肋/가늑	가늑	거짓갈비뼈	False rib
24	상지골(上肢骨)	上肢骨/상지골	none	none	Bones of upper limb
25	견갑골(肩胛骨)	肩胛骨/견갑골	견갑골	어깨뼈	Scapula
26	쇄골(鎖骨)	鎖骨/쇄골	쇄골	빗장뼈	Clavicle
27	요골(橈骨)	橈骨/요골	요골	노뼈	Radius
28	척골(尺骨)	尺骨/척골	척골	자뼈	Ulna
29	주상골(舟狀骨)	舟狀骨/주상골	주상골	손배뼈	Scaphoid
30	삼각골(三角骨)	三角骨/삼각골	삼각골	세모뼈	Triquetrum
31	유두골(有頭骨)	有頭骨/유두골	유두골	알머리뼈	Capitate
32	지골(指骨)	指骨/지골	none	손가락뼈	Phalanx
33	종자골(種子骨)	種子骨/종자골	종자골	종자뼈	Sesamoid bone
34	하지골(下肢骨)	下肢骨/하지골	none	none	Bones of lower limb
35	장골(腸骨)	腸骨/장골	장골	엉덩뼈	Ilium
36	골반(骨盤)	骨盤/골반	골반	골반	Pelvis
37	대퇴골(大腿骨)	大腿骨/대퇴골	대퇴골	넓적다리뼈/넙다리뼈	Femur
38	슬개골(膝蓋骨)	膝蓋/슬개	슬개골	무릎뼈	Patella
39	경골(脛骨)	脛骨/경골	경골	정강뼈	Tibia
40	비골(腓骨)	腓骨/비골	비골	종아리뼈	Fibula
41	거골(距骨)	距骨/거골	거골	목말뼈	Talus
42	주상골(舟狀骨)	舟狀骨/주상골	주상골	발배뼈	Navicular
43	설상골(楔狀骨)	楔狀骨/설상골	설상골	췌기뼈	Cuneiform
44	제1설상골(第一楔狀骨)	第1 楔狀骨/제1설상골	내측설상골	안쪽췌기뼈	Cuneiform Medial
45	제2설상골(第二楔狀骨)	第2 楔狀骨/제2설상골	중간설상골	중간췌기뼈	Cuneiform Intermediate
46	제3설상골(第三楔狀骨)	第3 楔狀骨/제3설상골	외측설상골	가쪽췌기뼈	Cuneiform Lateral

Fig. 12. Among the anatomical terms of bone name in Anatomy of Jejungwon (1906, translated version of Practical anatomy; Imada S. ed. 1887~1888), the same terms appear in Anatomia Minor (1962).

번호	소해부학 (1962년)	해부학용어 여섯째판(2014년)	의학용어집 제6판(2020년)		
			한글 용어		영어 용어
			구용어	신용어	
1	齒(牙)/치(아)	이(치아)	치	이	Teeth
2	脊柱/척주	척주	척주	척주	Vertebral column
3	種子骨/종자골	종자(뼈)	종자골	종자뼈	Sesamoid bone
4	骨盤/골반	골반	골반	골반	Pelvis
5	立方骨/입방골	입방(뼈)	none	입방뼈	Cuboid bone

Fig. 13. Among the anatomical terms of bone name in *Anatomia Minor* (1962), the same terms appear in *Korean Anatomical Terminology* (6th edition, 2014).

개, 팔뼈 18개, 다리뼈 21개)였고, 이 중에서 동일한 뼈이름 용어는 46개였다(Fig. 12).

사례: 頭蓋骨(두개골), 腦頭蓋(뇌두개), 顏面頭蓋(안면두개), 前頭骨(전두골), 後頭骨(후두골), 篩骨(사골), 淚骨(누골), 鼻骨(비골), 鋤骨(서골), 上顎骨(상악골), 口蓋骨(구개골), 下顎骨(하악골), 舌骨(설골), 齒/牙(치/아), 犬齒(견치), 脊柱(척주), 椎骨(추골), 頸椎(경추), 腰椎(요추), 薦椎(천추), 肋骨(늑골), 眞肋(진측), 假肋(가측), 上肢骨(상지골), 肩胛骨(견갑골), 鎖骨(쇄골), 橈骨(요골), 尺骨(척골), 舟狀骨(주상골), 三角骨(삼각골), 有頭骨(유두골), 指骨(지골), 種子骨(종자골), 下肢骨(하지골), 腸骨(장골), 骨盤(골반), 大腿骨(대퇴골), 膝蓋(슬개), 脛骨(경골), 腓骨(비골), 距骨(거골), 舟狀骨(주상골), 楔狀骨(설상골), 第1 楔狀骨(제일설상골), 第2 楔狀骨(제이설상골), 第3 楔狀骨(제삼설상골)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제증원 히부학(1906년)에 나오는 한글(괄호 속에 한문 용어 병기) 뼈이름 용어들 중에서 63.0% 정도가 소해부학(1962년)에서 동일하게 사용되었고, 나머지 37%의 용어들이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11. 소해부학(1962년)과 해부학용어 여섯째판(2014년)의 뼈이름 용어 비교

소해부학이 1962년에 출판된 후 52년이 지난 2014년에 해부학용어 여섯째판(대한해부학회)이 출판되었다. 소해부학[12]과 해부학용어 여섯째판[2]에 모두 실린 뼈이름 용어는 82개(머리뼈 28개, 몸통뼈 15개, 팔뼈 18개, 다리뼈 21개)였고, 이 중에서 서로 동일하게 사용한 용어는 오직 5개뿐이었다(Fig. 13).

사례: 1. Teeth: 齒/牙(치/아) (소해부학, 1962년) → 이/치아 (해부학용어 여섯째판, 2014년)

사례: 2. Vertebral column: 脊柱(척주) (소해부학, 1962년) → 척주(해부학용어 여섯째판, 2014년)

사례: 3. Sesamoid bone: 種子骨(종자골) (소해부학, 1962년) → 종자뼈(해부학용어 여섯째판, 2014년)

사례: 4. Pelvis: 骨盤(골반) (소해부학, 1962년) → 골반(해부학용어 여섯째판, 2014년)

사례: 5. Cuboid bone: 立方骨(입방골) (소해부학, 1962년) → 입방뼈(해부학용어 여섯째판, 2014년)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소해부학(1962년)에 나오는 뼈이름 용어들 중에서 오직 6.0% 정도만 해부학용어 여섯째판(2014년)에서 사용되었고, 나머지 94%가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1962년에 소해부학이 출판된 후 52년이 지난 2014년에 해부학용어 여섯째판(대한해부학회)이 출판되었다. 즉 52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대부분의 우리말 해부학용어(뼈이름 용어 포함)들이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고 찰

이 연구에서는 우리말 사람 뼈이름 용어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약 250년(1774~2020년) 동안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출판된 4개의 해부학 서적과 1개의 의학용어집(제6판), 1개의 해부학용어집(여섯째판)을 선별하였다. 각 자료에 있는 뼈이름 용어를 검색하여 동일하게 표기된 뼈이름 용어들의 수와 그 비율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를 시기별로 비교하여 뼈이름 용어들의 변천 과정을 알아보았다.

1. 해체신서와 중정해체신서, 제증원 히부학, 소해부학, 해부학용어 여섯째판, 의학용어집 제6판 선정

해체신서(1774년)와 중정해체신서(1826년)의 해부학용어

들은 대부분 한문으로 표기되어 있었다[7,8]. 제증원 히부학(1906년)은 우리나라 최초의 해부학 교과서로, 해부학용어들은 한글 번역어와 함께 한자를 병기하고 일부에서 영어도 표기하였다[11]. 소해부학(1962년)은 계통해부학 책으로 해부학용어들은 모두 한문으로만 표기하였다[12]. 해부학용어 여섯째판(2014년)의 해부학용어들은 모두 한글로만 표기하였다[2]. 의학용어집 제6판(2020년) [6]의 해부학용어들은 영어와 라틴어, 한문(실제로 한문을 한글로만 표기), 한글로 표기하였다.

참고로 ⑥ ⑤ ④ ③ ② ①은 각각 ⑥ 의학용어집 제6판(2020년), ⑤ 해부학용어 여섯째판(2014년), ④ 소해부학(1962년), ③ 제증원 히부학(1906년), ② 중정해체신서(1826년), ① 해체신서(1774년)를 의미한다. 사례: Sphenoid bone; Sphenoid; Sphenoidal bone; Os sphenoidale, ⑥ 나비뼈 또는 접형골, ⑤ 나비뼈, ④ 蝶形骨(접형골), ③ 호뿔골(蝴蝶骨) 또는 기초골(基礎骨), ② 楔骨(설골) 또는 腦基骨(뇌기골), ① 槓骨(질골)

4개의 해부학 서적과 해부학용어 여섯째판의 출판 연도의 간격이 대략 50~60년 정도로 비슷하였다(Fig. 1). 해체신서가 1774년에 출판된 후 52년이 지난 1826년에 중정해체신서가 출판되었고, 중정해체신서가 1826년에 출판된 후 80년이 지난 1906년에 제증원 히부학이 출판되었다. 제증원 히부학에 있는 해부학용어들은 대부분 일본에서 1888년에 출판된 실용해부학에 있는 해부학용어들을 번역한 것이다[13]. 실제로 제증원 히부학에 들어 있는 해부학용어들은 중정해체신서가 1826년에 출판된 후 62년이 지난 1888년에 사용되었던 해부학용어들이다. 제증원 히부학이 1906년에 출판된 후 56년이 지난 1962년에 소해부학이 출판되었고, 소해부학이 1962년에 출판된 후 52년이 지난 2014년에 해부학용어 여섯째판이 출판되었다.

1) 해체신서(解體新書, 1774년)

해체신서(解體新書)는 서양의 해부학 교과서를 동양에서 처음으로 일본어로 번역한 해부학 책이다. 독일의 요한 아담 쿨무스(Johann Adam Kulmus, 1689~1754)가 1722년에 펴낸 해부도표(解剖圖表, Anatomische Tabellen 타팔렌 아나토미아)를 네덜란드의 의사 딕텐(Gerardus DICTEN, 1696~1745)이 네덜란드어로 번역하여 1734년에 Tabulae Anatomicae 또는 Ontleedkundige tafelen로 출판하였다. 이 Tabulae Anatomicae를 스기타 겐파쿠(杉田玄白, 1733~1817) 등이 일본어(실제로는 한문으로 표기)로 재번역하여 1774년에 간행한 책이 바로 해체신서다. 이 책은 서양의 해부학이 본격적으로 동아시아에 소개되었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크지만, 한국이나 중국에서 오늘날에도 사용하는 기본적인 의학용어

를 번역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5,7,8].

스기타 겐파쿠는 해체신서에서 신체 부위에 정확한 명칭을 부여하기 위해 번역과 의역, 직역의 세 가지 방법을 사용했다. 번역은 네덜란드어 중 한자어에 대응하는 것이 있으면 그 한자어로 바꾸는 것으로 네덜란드어 ‘벤데렌(Beenderen)’을 ‘뼈(骨)’라고 옮기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의역은 원어의 의미에 맞게 새로운 한자어를 창작하는 것이다. ‘카라카벤(kraakbeen)’은 부드러운(kraak) 뼈(beenderen)를 일컫는 것이므로 이를 연골(軟骨)이라고 옮기는 것이 의역의 예이다. 번역과 의역이 모두 어려우면 원어를 한자어나 일본식 표기인 가타카나로 표기했다. ‘Klier’는 해당하는 단어도 없고 창작도 어려워 ‘키리이루’(機里爾) (‘키리이루’는 후에 우다가와 겐신에 의해 ‘선(腺)’으로 의역되는데, 현대 한국어로는 ‘샘’이다)로 표시하는데 이런 방식이 직역(음차어)이다[8].

2) 중정해체신서(重訂解體新書, 1826년)

중정해체신서(重訂解體新書) [8,9]는 오쓰키 겐타쿠(大槻玄澤, 1757~1827)가 스기타 겐파쿠(杉田玄白, 1733~1817)의 명에 따라 쿨무스의 원전에 가깝게 해체신서(1774년)의 번역을 바로잡고 겐타쿠 자신이 여러 종류의 네덜란드 서적을 섭렵하며 얻은 지식을 함께 수록하여 1826년에 출판하였다. 또한 중정해체신서는 해체신서에 실린 목판화의 도판을 동판화로 제작하여 입체감 있게 표현한 해체신서의 개정판이다. 이 서적을 통하여 1820년대 일본어(실제로 한문) 해부학용어를 알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겐타쿠가 1826년에 출판한 중정해체신서(重訂解體新書) [9]의 원본을 확인하지 못했고, 대신에 2014년에 김성수가 우리말로 번역하여 출판한 한국판 해체신서에 나오는 중정해체신서의 내용을 검색하였다[8]. 이에 해체신서(1774년) 원본에서 확인된 뼈이름 용어는 63개였지만, 한글로 번역된 중정해체신서 관련 내용에서 확인된 뼈이름 용어들은 모두 57개(머리뼈 22개, 몸통뼈 13개, 팔뼈 9개, 다리뼈 13개)로, 그 수가 적었다.

3) 제증원 히부학(1906년)

제증원 히부학(1906년)은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해부학 교과서이다[10]. 제증원 히부학은 일본 해부학자 이마다 쓰카누(今田東, 1850~1889)가 1888년에 저술한 실용해부학(實用解剖學)을 제증원의 학생 김필순이 우리말로 번역하고 선교사이자 제증원 의학교의 교수인 에비슨이 교열하여 펴낸 책이다[11,13]. 제증원 히부학 편찬 시 이마다의 실용해부학을 번역하면서 새로운 용어를 만들기보다는 일본 의학서에 실린 해부학용어를 대부분 받아들였다. 이에 제증원 히부학에 있는 해부학용어들은 대부분 실용해부학에 있는 해부학용어들이다. 그래서 제증원 히부학(1906년)에 있는 해부

학용어들은 실제로 중정해체신서가 출판된 후 62년이 지난 1888년에 일본에서 사용하던 해부학용어들이다. 제중원 히부학을 통하여 1880년대 일본어책(실용해부학)에 실린 일본식 한자 용어와 1900년대 최초의 우리말 한글 용어를 알 수 있었다.

제중원 히부학에서는 우리 몸 각 부분의 명칭이나 구조, 특성을 우리말 어휘와 문장으로 풀이하고 필요한 경우 한글 번역어를 한자로 병기하고 더러 원어 영어도 함께 적었다. 사례: 데이경퇴 혹 추축(樞軸) (2nd Cervical vertebra or AXIS) 그리고 그레이 해부학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참고한 서양 의학서와 중국이나 일본의 의학서에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이마다의 실용해부학에 없는 내용을 추가하는 등 수정, 보완을 거쳐 우리말 해부학 교과서 3권을 완성했다[11,13].

제중원 히부학에서 척추(脊椎)의 ***추(椎)***를 ***퇴***로 읽거나 표기한 배경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오타가 아니라, 당시의 한자 발음 체계와 의학적 용어의 관습이 반영된 결과이다. 척추의 ‘추’를 ‘퇴’로 쓴 것은 ① 한자 자체에 ‘퇴’라는 발음이 공존했고 ② 의학계에서 척추 마디를 ‘망치 모양(퇴)’으로 인식하여 관습적으로 그렇게 불렀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가 ‘등뼈’라고 부르는 것을 과거에 ***퇴골***이라 불렀던 전통이 문헌에 고스란히 남아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같은 한문 ‘椎’를 사용하지만 우리말로 ‘추’ 또는 ‘퇴’로 표기한 경우에는 동일한 뼈이름 용어로 판단했다.

제중원 히부학에 수록된 의학용어는 중국이나 일본에서 비롯된 한자어가 많았고 이마다의 용어를 대부분 따르고 있었다. 용어는 한글로 읽어 제시했으며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구간골은 척주와 흉골과 특골과 설골(舌骨)과 및 두개골이니라”[11]와 같이 더러 괄호 속에 한자를 제시했다. 또, 소제목에 쓸 때 “(일)척주(등뼈) SPINAL COLUMN”[11]과 같이 한자어 뒤에 익숙한 고유어를 함께 적어 제시한 경우도 있었다. 또, “뼈는 7장 강하고 굵으며 뺨면은 황벽색이오 탄력이 좀 있스며 또 전신의 뼈가 서로 련접한 거슬 골격(骨格)이라 하니”[11]와 같이 설명은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풀어 기술했다.

4) 소해부학(小解剖學, 1962년)

소해부학(小解剖學)은 제중원의 히부학(1906년)이 출판된 후 56년이 지난 다음 1962년에 출판되었다. 소해부학은 한갑수 교수(부산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가 우리나라의 한협인쇄소(韓協印刷所)에서 간행한 해부학 교과서이다. 이 책은 그림이 없는 계통해부학 교과서로, 이 책에 나오는 해부학용어들은 모두 한문으로만 표기되어 있었다. 이 책을 통하여 1960년대 우리나라 해부학 교과서에서 사용하였던 해부

학용어들을 알 수 있었다[12].

5) 해부학용어 여섯째판(2014년)

해부학용어 여섯째판(2014년)은 소해부학(1962년)이 출판되고 52년이 지난 다음 2014년에 출판되었다[2]. 대한해부학회에서 해부학용어 초판을 책으로 펴낸 것은 1978년이 었다[1]. 해부학용어 둘째판(1981년)은 첫째판에서 잘못된 일부를 교정한 것에 그쳤다[14]. 이들 용어집은 일본 해부학 용어(일본식 한자)를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어려웠고 사용하기 불편하였다. 따라서 1980년대 후반부터 대한해부학회의 용어위원회에서는 일본식 한자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려고 애썼고, 그 노력의 결과가 해부학용어 셋째판(1990년)[15]과 해부학용어 넷째판(1996년)[16]이었다. 한편 비슷한 시기에 국제해부학회에서는 영어 용어, 라틴어 용어를 새롭게 정리해서 발표하였고, 그에 따라서 우리말 용어를 다시 다듬을 필요가 생겼다. 먼저 나온 Terminologia Anatomica (1998년)[17]를 바탕으로 해부학용어(신경해부학용어 포함)를 정리한 것이 해부학용어 다섯째판(2005년)이었다[18]. 이어서 나온 Terminologia Histologica (2008년)[19]에 따라서 조직학용어를 다시 다듬었고, 해부학용어와 조직학용어를 묶어 해부학용어 전자책(2012년)으로 펴냈다[20]. 국제해부학회에서 마지막으로 발표한 Terminologia Embryologica (2013년)[21]를 가지고 선천 기형을 포함한 발생학용어를 손질하였고, 해부학, 조직학, 발생학용어를 묶어서 해부학용어 여섯째판(2014년)을 펴냈다[2]. 해부학용어 여섯째판의 용어들은 모두 18,557개로 해부학용어가 7,851개, 조직학용어가 4,270개, 발생학용어가 6,436개이다[2].

6) 의학용어집 제6판(2020년)

의학용어집 제6판(2020년)[6]은 해부학용어 여섯째판(2014년)[2]이 출판되고 6년이 지난 다음 2020년에 대한의사협회에서 출판하였다. 대한의사협회에서 펴낸 의학용어집은 모두 여섯 번(의학용어집 제1집(1977년), 의학용어집 제2집(1983년), 의학용어집 제3집(1992년), 의학용어집 제4판(2001년), 의학용어집 제5판(2009년), 의학용어집 제6판(2020년)) 발행되었다[6]. 의학용어를 꾸준히 다듬어서 용어집을 펴낸 까닭은 의학 발전에 따라 새로운 검사방법, 진단명, 시술, 치료명 등이 끊임없이 나오고,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과 학생들이 많은 의학용어를 알기 쉽게 이해하려면 의학용어에 논리와 일관성을 담아야 하고, 의사와 국민 사이의 소통을 위해 의학용어를 쉽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의학용어집 제6판(2020년)의 편찬 작업은 의학용어위원회(위원장 조영욱)에서 진행하였다. 조영욱 의학용어위원장은 “앞으로도 의학용어를 일반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우리말 용어로 변경하는 작업은 꾸준히 진행돼야 할 것이다”며, “그러기 위

해서는 각 학회나 회원들이 의학용어의 우리말화에 대해 이해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무리하게 한자어를 한글로 바꾼다면 의사들 사이에 소통의 벽이 생길 수 있으며,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하고, “이 부분에 대해 많이 고민했고, 현재 사용 중인 한자 용어 중에 이해가 쉽고, 국민 대부분이 익숙해져 있는 용어는 그대로 사용하고, 이해가 어려운 한자 용어 중에 우리말 용어로 대체할 경우 이해가 쉬운 단어들은 우리말 용어로 통일시키도록 노력했다”고 덧붙였다[6].

2. 의학용어집 제6판(2020년)의 용어를 오늘날 사용하는 뼈이름 용어로 선정

해부학용어 여섯째판(2014년, 대한해부학회) [2]에 있는 해부학용어들은 한문 용어(예외적으로 척주, 척추, 골반 등은 사용하고 있음) 대신에 대부분 순우리말 용어(한글 용어)만을 사용하고 있기에 옛날 한문 용어들과 비교가 불가능하였다. 반면에 의학용어집 제6판(2020년, 대한의사협회) [6]에 있는 해부학용어들은 영어와 라틴어, 한문 용어(실제로 한문을 한글로만 표기), 한글 용어들(예, Parietal bones/Os parietale, 두정골, 마루뼈)로 표기하고 있기에 옛날부터 사용한 한자 또는 한문 용어(한문을 한글로 표기)들과 비교할 수 있었다.

3. 대한해부학회에서 발행한 해부학용어집과 한글 해부학용어의 변천 과정

대한해부학회에서 발행한 해부학용어(초판~여섯째판)는 다음과 같다. 해부학용어 초판과 둘째판은 한글(실제로 한문을 한글로 표기)과 괄호 속에 한자를 병용해서 표기했고, 셋째판은 초판과 둘째판에 있던 괄호 속의 한자를 없애고 한글(실제로 한문을 한글로 표기)로만 표기했다. 넷째판은 순우리말 용어(순수 한글 용어)와 괄호 속에 한문을 한글로 표기한 한문 용어를 병용해서 표기했다. 다섯째판과 여섯째판은 넷째판에 있던 괄호 속의 한글로 표기된 한문 용어를 없애고 순수 한글 용어만 표기했다.

참고로 ⑥ ⑤ ④ ③ ② ①은 각각 해부학용어 여섯째판(2014), 다섯째판(2005), 넷째판(1996), 셋째판(1990), 둘째판(1981), 초판(1978)을 의미한다. 사례: ⑥ Rib/Costa 갈비뼈, ⑤ Rib/Costa 갈비뼈, ④ Rib/Os costa (Costa) 갈비뼈(늑골), ③ Rib/Os costate (Costa) 늑골, ② Costae 늑골(肋骨), ① Costae 늑골(肋骨)

1) 해부학용어 초판(1978년) [1]

대한해부학회에서 1978년 5월 30일에 발행한 해부학용어

초판(가격 3,000원)은 최신의학사(最新醫學社)에서 1978년 5월 20일에 인쇄하였다. 해부학용어 초판의 계통해부학에 관한 해부학용어들이 한글(한문)과 라틴어로 배열 및 표기(예, 관골(腕骨) Os coxae)되었다.

2) 해부학용어 둘째판(1981년) [14]

대한해부학회에서 1981년 5월 20일에 발행한 해부학용어 둘째판(가격 5,000원)은 최신의학사에서 인쇄하였다. 해부학용어 둘째판의 해부학용어들은 이미 발간되었던 해부학용어 초판의 오자와 누락 등을 수정 및 보완하였고, 초판과 동일하게 한글(한문)과 라틴어로 배열 및 표기(예, 관골(腕骨) Os coxae)되었다.

3) 해부학용어 셋째판(1990년) [15]

대한해부학회에서 1990년 4월 1일에 발행한 해부학용어 셋째판(가격 15,000원)은 계축문화사에서 1990년 3월 26일에 인쇄하였다. 해부학용어 셋째판의 해부학용어들은 해부학용어 초판과 해부학용어 둘째판과 다르게 “아름다운 우리 언어 습성에 알맞은 용어”를 제정하기 위하여 한문 표기는 모두 없애고 오직 한글, 라틴어, 영어로 배열 및 표기(예, 관골 OS COXAE [PELVICUM] HIP BONE)되었다. <용어 찾아보기>는 한글 용어, 옛용어(실제로 한문 용어를 한글로 표기), 라틴어 용어, 영어 용어 등 어느 것으로나 찾아볼 수 있게 제작되었다.

참고로 198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는 사회적으로 한글 교육의 강화와 더불어 한문 교육의 사양화로 의학용어를 비롯하여 한문식 전문 용어들에 대한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또한 경제 발전과 함께 의료보험의 도입, 진단과 치료 기법의 발달로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요구되었고, 어려운 한문식 의학용어 때문에 의사와 환자들 사이에 의사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한글식 의학용어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해부학용어 자체가 안고 있는 결함과 사용상의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개선하여 ‘아름다운 우리 언어 습성에 알맞은 해부학용어를 만든다’는 목표 아래, 1986년 대한해부학회의 장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상설기구로 용어심의위원회가 다시 조직되어 해부학용어 제정 사업을 진행하였다. 처음에는 Nomina Anatomica (1983)에 맞추어 작업을 시작하였는데, 작업이 마무리될 무렵 국제해부학회에서 Nomina Anatomica 여섯째판(1989)이 출간되었기 때문에 이에 맞추어 시안을 완성하였다. 1990년 4월 해부학, 조직학, 발생학 용어들을 통합한 해부학용어 셋째판(1990년, 계축문화사)이 출판되었다.

4) 해부학용어 넷째판(1996년) [16]

대한해부학회에서 1996년 1월 30일에 발행한 해부학용

어 넷째판(가격 30,000원)은 도서출판 아카데미에서 편집하였고 (주) 우림인쇄에서 1996년 1월 20일에 인쇄하였다. 해부학용어 넷째판의 해부학용어들은 해부학용어 셋째판과 동일하게 한문 표기는 모두 없애고 오직 한글, 라틴어, 영어로 배열 및 표기(예, 볼기뼈[관골] Os coxae [pelvicum] Hip bone)되었다. 해부학용어 넷째판의 해부학용어들(사람 몸의 부분을 가리키는 용어나, 뼈 이름 또는 큰 내장 기관 이름 등)은 의학을 전공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많은 일반 사람이 일상 생활이나 각급 학교 교육과정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한글 용어(일본식 한자용어 대신에 우리말 용어)로 바꾸었다. 용어 찾아보기는 한글 용어, 옛용어(한문 용어를 한글로 표기), 라틴어 용어, 영어 용어 등 어느 것으로나 찾아볼 수 있게 제작되었다.

참고로 해부학용어 셋째판이 출판된 후 용어위원회가 다시 소집되어 바로 일을 시작하였다. 지난 셋째판에서 의욕은 앞섰으나 고치는 데 힘이 부쳤던 부분을 좀 더 체계적으로 바로잡고 이번에는야말로 ‘해부학용어를 한글 용어답게 다듬겠다.’는 기치 아래 5년 동안 용어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이 일에 매달렸다. 국제해부학회에서 제정한 해부학용어인 Nomina Anatomica (제6판, 1989년)가 새로 나옴에 따라 넷째판 개정 작업에서는 이것을 기준으로 삼았다. 용어심의위원회 위원들은 32차례의 모임을 가졌고, 용어 심의를 계속하여 1996년 1월 30일 해부학용어 넷째판(1996년, 아카데미)을 출판하였다.

5) 해부학용어 다섯째판(2005년) [17]

대한해부학회에서 2005년 3월에 발행한 해부학용어 다섯째판(가격 40,000원)은 도서출판 아카데미에서 2005년 2월에 펴내고 인쇄하였다. 해부학용어 다섯째판은 Terminologia Anatomica (1998년) [18]를 기본으로 맨눈해부학용어만 수록하였고, 해부학용어 넷째판의 해부학용어들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다. 해부학용어 다섯째판의 해부학용어들은 한글, 영어, 라틴어로 배열 및 표기(예, 볼기뼈 Hip bone; Coxal bone; Pelvic bone, Os coxae)되었다. <용어 찾아보기>는 우리말용어 찾아보기, 영어용어 찾아보기, 라틴어용어 찾아보기로 구분하여 제작되었다.

6) 해부학용어 전자판(2012년) [19]

대한해부학회에서 2012년 4월에 해부학용어 전자판을 발행하였다. 해부학용어 전자판은 해부학용어 다섯째판의 해부학용어들 중에서 틀린 용어를 새로 다듬었고, Terminologia Anatomica (1998년) [18]와 Terminologia Histologica (2008년) [20]를 기본으로 조직학용어를 새로 정리하였다. 다만 당시에 발생학용어(Terminologia Embryologica, 2013년) [21]를 다듬고 있었기에, 해부학용어와 조직학용어만 우선 전자

판으로 제작하여 선을 보이고, 발생학용어가 모두 다듬어진다면 종이책인 여섯째판을 펴내기로 하였다. 해부학용어 전자판은 한글, 영어, 라틴어로 배열 및 표기(예, 볼기뼈 Hip bone; Coxal bone, Os coxae)되었다.

6) 해부학용어 여섯째판(2014년) [2]

대한해부학회에서 2014년 10월 1일에 발행한 해부학용어 여섯째판은 도서출판 아카데미에서 2014년 9월 25일에 펴내고 인쇄하였다. 해부학용어 여섯째판은 Terminologia Anatomica (1998년) [18]와 Terminologia Histologica (2008년) [20], Terminologia Embryologica (2013년) [21]를 기본으로 해부학용어, 조직학용어, 발생학용어를 묶어서 펴냈다. 세 용어를 묶어서 펴낸 것은 넷째판(1996년) 이후 18년 만이었다. 해부학용어 여섯째판 용어들은 모두 18,557개로, 해부학용어가 7,851개, 조직학용어가 4,270개, 발생학용어가 6,436개였다. 한글, 영어, 라틴어로 배열 및 표기(예, 볼기뼈 Hip bone; Coxal bone, Os coxae)되었다.

4. 대한의사협회에서 발행한 의학용어집과 의학용어 변천 과정

대한의사협회에서 발행한 의학용어집(제1집~제6판)은 다음과 같다[22].

1) 의학용어 제1집(1977년)

대한의사협회에서 1976년에 의학용어제정위원회(위원장 전종휘, 심의위원 8명)를 구성하였고, 24개 분과학회에서 의학용어 심의위원으로 194명의 위원이 참여하였다. 대한의사협회에서 1977년에 2만 용어를 수록한 의학용어 제1집을 발행하였다.

2) 의학용어 제2집(1983년)

대한의사협회에서 24개 분과의 용어위원 200여 명이 용어 선정 및 추천에 참여하여 1983년에 4만 용어를 수록한 의학용어 제2집을 발행하였다.

3) 의학용어 제3집(1992년)

대한의사협회에서 39개 분과학회의 용어심의위원 304명이 참여하여 1992년에 13만 용어를 수록한 의학용어 제3집을 발행하였다. 의학용어 제3집은 1988년 개정된 국어 표준화와 외국어 한글 표기법에 의거하여 발간되었고, 1992년에 남북한의학용어 비교연구 소위원회를 구성하였다.

4) 의학용어 제4집(2001년)

대한의사협회에서 1995년에 남북한의학용어 비교연구위원을 포함한 의학용어실무위원회를 재구성하여 2001년에 의학용어 제4집을 발행하였다. 대한의사협회에서 2006년에 의

학용어 제4집의 수정판으로 필수의학용어집을 발간하였다.

5) 의학용어 제5판(2009년)

대한의사협회에서 2006년에 용어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분리하였고, 2009년 3월에 30개 전문학회 용어위원장이 참여하여 의학용어 제5판을 발간하였다. 제5판 용어들 중에서 권장 용어를 선정하였고, 오류를 교정하여 2015년 12월에 의학용어 제5판(수정판)을 게재하였다(2015년 1월에 온라인 배부).

6) 의학용어 제6판(2020년)

대한의사협회가 2020년 3월에 76,000여 개의 용어들이 수록된 의학용어 제6판을 발간하였다. 2020년 8월에 의학용어위원회와 실무위원회가 단일화되었다. 의학용어위원회는 의학용어 제정 및 의학용어집을 발간하고, 의사국가고시 출제 시 의학용어를 감수하고, 타 학술단체로부터의 의학용어 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결 론

사람 뼈이름 용어들의 변화 과정을 1774년(해체신서)부터 오늘날(의학용어집 6판, 2020년)까지 알아보았다. 이에 1774년부터 2020년 사이에 출판된 해체신서(1774년)와 중정해체신서(1826년), 제증원 히부학(1906년), 소해부학(1962년), 해부학용어 여섯째판(2014년), 의학용어집 제6판(2020년)에 나오는 뼈이름 용어를 검색하였다. 각 자료들에서 동일하게 사용된 뼈이름 용어들의 수와 그 비율을 산출하여 서로 비교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해체신서에 나오는 뼈이름 용어는 머리뼈 26개와 몸통뼈 12개, 팔뼈 9개, 다리뼈 16개로 모두 63개였다.
2. 해체신서(1774년)에 나오는 63개의 뼈이름 용어들 중에서 246년이 지난 오늘날(의학용어집 제6판, 2020년)까지 동일하게 사용하는 용어는 21개(33.3%)였다.
3. 중정해체신서(1826년)에 나오는 57개의 뼈이름 용어들 중에서 194년이 지난 오늘날(의학용어집 제6판, 2020년)까지 동일하게 사용하는 용어는 27개(47.4%)였다.
4. 제증원의 히부학(1906년)에 나오는 71개의 뼈이름 용어들 중에서 114년이 지난 오늘날(의학용어집 제6판, 2020년)까지 동일하게 사용하는 용어는 43개(60.5%)였다.
5. 소해부학(1962년)에 나오는 78개의 뼈이름 용어들 중에서 58년이 지난 오늘날(의학용어집 제6판, 2020년)까

지 동일하게 사용하는 용어는 58개(74.3%)였다.

6. 해부학용어 6판(2014년)에 나오는 79개의 뼈이름 용어들 중에서 6년이 지난 오늘날(의학용어집 제6판, 2020년)까지 동일하게 사용하는 용어는 77개(97.4%)였다.
7. 해체신서(1774년)에 있는 52개의 뼈이름 용어들 중에서 52년이 지난 1826년에 개정된 중정해체신서에서 동일하게 사용된 용어는 15개(28.8%)였다.
8. 중정해체신서(1826년)에 있는 52개의 뼈이름 용어들 중에서 80년이 지난 1906년에 발행된 제증원 히부학에서 동일하게 사용된 용어는 32개(61.5%)였다.
9. 제증원 히부학(1906년)에 있는 73개의 뼈이름 용어들 중에서 56년이 경과된 1962년에 발행된 소해부학에서 동일하게 사용된 용어는 46개(63.0%)였다.
10. 소해부학(1962년)에 나오는 82개의 뼈이름 용어들 중에서 52년이 경과된 2014년에 발행된 해부학용어 6판에서 동일하게 사용된 용어는 오직 5개(6.0%)뿐이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사람 뼈이름 용어들은 1774년부터 오늘날(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해체신서(1774년)와 중정해체신서(1826년)가 출판된 기간(일본)과 소해부학(1962년)과 해부학용어 6판(2014년)가 출판된 기간(한국)이 각각 52년이지만, 양쪽에서 동일하게 사용된 뼈이름 용어의 비율은 각각 28.8%와 6.0% 정도였다. 특별히 이 기간에 다른 시기에 비하여 일본과 한국에서 뼈이름 용어들이 큰 폭으로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람 뼈이름 용어도 살아있는 생물과 비슷하게 시대의 흐름에 따라 빠르게 적응하며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앞으로 한국의 해부학용어 수용 양상을 정리하기 위해서 먼저 할 일은, 우리가 옛날부터 사용했던 해부학용어의 목록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증수무원록언해를 비롯하여 여러 의학서나 용어집에 언급된 신체 부위 용어를 정리해야 할 것이다[23]. 다음으로는 일본이 번역한 해부학용어가 우리에게 어떻게 수용되었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 이를 위해 일본 해부학 서적을 토대로 하여 제증원과 민간에서 번역한 한글 의학서적이나 해부학 교과서의 면밀한 대조를 통한 용어 정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시간 제약으로 사람 뼈이름 용어들의 변천 과정만 살펴보았다. 나머지 해부학용어들의 변천 과정에 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해부학용어들의 변천 과정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앞으로 해부학용어들이 과학적이고 아름답고 실용적인 용어로 거듭나길 고대한다. 또한 대한해부학회와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용어들을 토박이말로 바

꾸는 과정에서 옛 용어들의 변천 과정을 참고하고, 시간적 여유를 갖고 먼 앞날을 내다보면서 용어를 다듬어 가야 할 것이다.

REFERENCES

1. Korean Associations of Anatomists. Korean anatomical terminology, 1st ed. Choesin Euhaksa. Seoul, Korea; 1978. Korean.
2. Korean Associations of Anatomists. Korean anatomical terminology, 6th ed. Academia. Seoul, Korea; 2014. Korean.
3. Jeong IC, Lee MB, Hahn KS. Illustrated dictionary of human anatomy, 1st ed. Komoonsa. Seoul, Korea; 1976. Korean.
4. Chung IH, Koh KS. History of the korean anatomical terminology. Korean J Phys Anthropol. 2017;30:113-33. Korean.
5. Sugita G. Kaitai Shinsho. Suharaya Ichibee. Japan; 1774. Japanese.
6. Korean Medical Association. Medical terminology. 6th ed. Koonja. Seoul, Korea; 2020. Korean.
7. Shizu Sakai. New edition of Kaitai Shinsho. Kodansha Co., Ltd. Japan; 1998. Japanese.
8. Sugita G (author), Kim SS (translator). Kaitai Shinsho. Hangeul publishing Co., Ltd. Seoul, Korea; 2014. Korean.
9. Otsuki G. Revised Kaitai Shinsho. Tokyo, Japan; 1826. Japanese.
10. Kim PS. Anatomy (translated version of practical anatomy; Imada S. ed. 1887-1888). Jejungwon. Seoul, Korea; 1906. Korean.
11. Kim PS (author), Kim CM (director of translation). Anatomy 1. National Hangeul Museum. Seoul, Korea; 2016. Korean.
12. Hahn KS. Anatomia minor. Hanhyup printing Co., Ltd. Seoul, Korea; 1962. Korean.
13. Kim SS, Sihm KH. See the world with the body. The establishment and development of east asian anatomy.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Seoul, Korea. 2017; Korean.
14. Korean Associations of Anatomists. Korean anatomical terminology. 2nd ed. Choesin Euhaksa. Seoul, Korea; 1981. Korean.
15. Korean Associations of Anatomists. Korean anatomical terminology, 3rd ed. Gyechuk Munhwasa. Seoul, Korea; 1990. Korean.
16. Korean Associations of Anatomists. Korean anatomical terminology. 4th ed. Academia. Seoul, Korea; 1996. Korean.
17. Federative Committee on Anatomical Terminology. Terminologia anatomica. Thieme. Stuttgart; 1998.
18. Korean Associations of Anatomists. Korean anatomical terminology. 5th ed. Academia. Seoul, Korea; 2005. Korean.
19. Federative International Committee on Anatomical Terminology. Terminologia histologica. Wolters Kluwer. Lippincott W & W. Philadelphia; 2008.
20. Korean Associations of Anatomists. Korean anatomical terminology. Electronic ed. Academia. Seoul, Korea; 2012. Korean.
21. Federative International Programme on Anatomical Terminologies. Terminologia embryologica. Thieme. Stuttgart; 2013.
22. Korean Medical Association. Medical terminology committee [Internet]. Korean medical library engine. 2026. Available from: <http://www.kmle.co.kr/>.
23. Yun YH, Shin DH, Hong SU, SJ Hong, Lee SD, Ki HC, et al. Anatomical landmarks used for post-mortem investigation records described in Jeungsu Muwonrok Eonhae of Joseon dynasty period. Anat Biol Anthropol. 2023;36:67-76. Korean.

간추림 : 동북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서양 해부학 서적을 일본어(실제로 한문)로 번역하여 1774년에 발간된 책이 해체신서(解體新書)이다. 해체신서에서 처음 사용되었던 해부학용어들은 오늘날 대부분 사라졌고, 사라진 용어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변천 과정을 우리는 잘 모른다. 이에 해부학용어의 개정과 연구, 해부학 교수와 학생, 일반인에게 도움을 주고자 이 연구를 실시하였다. 해체신서(1774년)에서 사용된 뼈이름 용어들을 중심으로 오늘날까지 약 250년 동안 사람 뼈이름 용어들의 변천 과정을 알아보았다. 1774년부터 2020년까지 출판된 4개의 해부학 교과서인 해체신서(1774년)와 중정해체신서(1826년), 제중원 히부학(1906년), 소해부학(1962년) 그리고 2개의 용어집인 해부학용어 여섯째판(2014년)과 의학용어집 제6판(2020년)에 나오는 뼈이름 용어들을 검색하고 서로 동일하게 사용된 뼈이름 용어들의 수와 그 비율을 산출하였다. 해체신서에 나오는 뼈이름 용어는 모두 63개로 머리뼈 26개, 몸통뼈 12개, 팔뼈 9개, 다리뼈 16개였다. 해부학 교과서와 용어집에서 사용된 뼈이름 용어들 중에서 오늘날(의학용어집 제6판, 2020년, 대한의사협회 발행)까지 동일하게 사용되는 용어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 해체신서(1774년)의 뼈이름 용어들 중에서 33.3%, 중정해체신서(1826년)의 뼈이름 용어들 중에서 47.4%, 제중원 히부학(1906년)의 뼈이름 용어들 중에서 60.5%, 소해부학(1962년)의 뼈이름 용어들 중에서 74.3%, 해부학용어 여섯째판(2014년)의 뼈이름 용어들 중에서 97.4%가 오늘날(2020년)까지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었다. 또한 해체신서(1774년)에 있는 뼈이름 용어들 중에서 52년이 지난 1826년에 개정된 중정해체신서에서 동일하게 사용된 용어의 비율은 28.8%였다. 중정해체신서(1826년)에 있는 뼈이름 용어들 중에서 80년이 지난 1906년에 발행된 제중원 히부학에서 동일하게 사용된 용어의 비율은 61.5%였다. 제중원 히부학(1906년)에 있는 뼈이름 용어들 중에서 56년이 지난 1962년에 발행된 소해부학에서 동일하게 사용된 용어의 비율은 63.0%였다. 소해부학(1962년)에 있는 뼈이름 용어들 중에서 52년이 경과된 2014년에 발행된 해부학용어 여섯째판에서 동일하게 사용된 용어의 비율은 6.0%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사람 뼈이름 용어들은 1774년부터 오늘날(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해체신서(1774년)와 중정해체신서(1826년)의 사이와 소해부학(1962년)과 해부학용어 여섯째판(2014년)의 사이는 각각 52년 간격이지만 동일하게 사용된 용어의 비율은 28.8%와 6.0%로 대부분의 뼈이름 용어들이 변경되었다. 이는 뼈이름 용어들이 특정 기간에 급격하게 변경되었음을 시사한다. 사람 뼈이름 용어도 살아있는 생물과 비슷하게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적응하고 발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찾아보기 낱말 : 뼈이름, 한국해부학용어, 일본해부학용어, 해부학용어 변천사